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조경대상 수상

- 95 ISO 9001 국제품질인증 획득(3개년)
- 95 품질경영 100선기업 선정
- 95 우수건축물 금상, 은상 수상
- 95 한국건축문화 대상 건축부문 수상
- 95 한국 품질경영대회 대통령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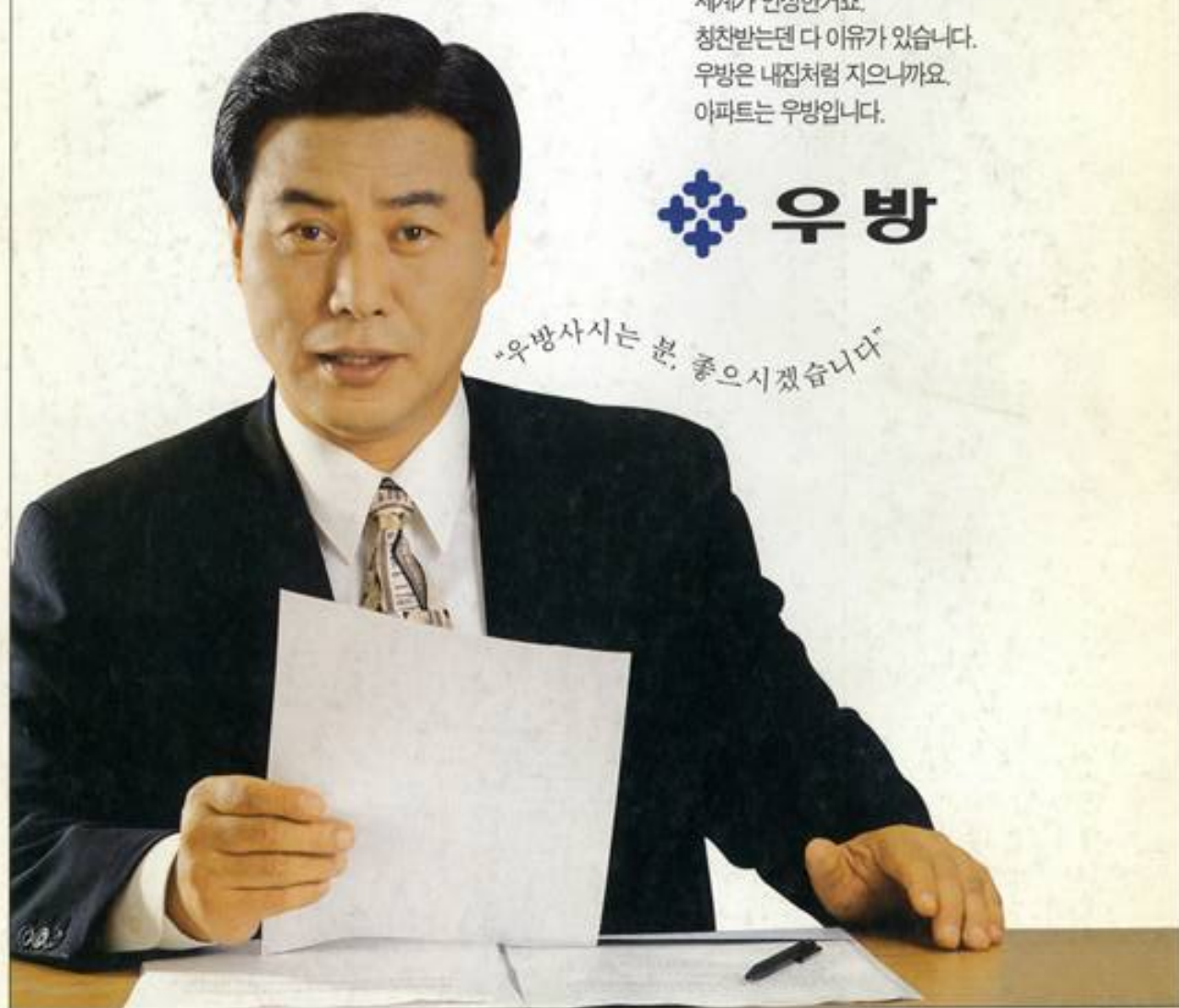
사공, 조경, 환경, 국제표준기구까지
우방의 기술력이 최고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방 사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신도시 입주자 만족도 1위로
소비자 여러분의 격찬을 받은
우방아파트가
품질경영 100선기업
선정에 이어
ISO 국제품질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마침내 우방의 건축품질을
세계가 인정한거죠.
칭찬받는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방은 내집처럼 지으니까요.
아파트는 우방입니다.



“우방 사시는 분, 좋으시겠습니다”



월간여성7월호(통권342호) / 1996년7월10일(매월10일) 발행 / 1964년6월13일 (우편번호 140-013)

여성성



특·집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96·7

사단
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KOREAN NATIONAL COUNCIL OF WOMEN

월간여성7월호(통권342호) / 1996년7월10일(매월10일) 발행 / 1964년6월13일(우편번호 140-013)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엑센트-新·문화기행

김대리어 떠나자 - 강원권①

작고 소중한 新문화의 향기를 찾아 떠나십시오

기행문을
보내주세요

'관람'이 아니라 '기행'
뜻뜻하고 알찬
김대리어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아무런 여행준비가 여행중에
느꼈던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 1. 응모주제**
여행중 느꼈던 재미있고 소중한 이야기(사진첨부)
- 2. 응모요령**
 - 접수기간: '96.7.1~8.31
 - 응모자격: 만 18세이상 대한민국 남, 녀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용모착은 반환치 않으며 당선작의 저작권은 현대자동차에 있음)
 - 문의 및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자동차(주)광고팀 "新 문화기행 공모" 담당자
(Tel: 746-6055) 또는 고객상담센터(080-0237-800)

구분	편수	상 품
대선	1	백만원(13.2mL A/C포함)
우수상	2	동남아 5일 여행권 22매
가점	10	경주현대호텔 2박3일 숙박권
합선	20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참가상	전체	소정의 상품권

* 대선이 경우 독소제, 부가세는 제외되며 부록 조세제, 주입제는 당선자 부담

우리 땅 만나러 가자!

정말 몰랐습니다. 세상에 대나무가 검은 줄이냐,
밭길따라 이곳저곳 다녀 볼 때마다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우리땅이 반기고 있다는 사실 -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오죽(烏竹)이라하여
색다른 맛이 풍기는 오죽현 -
사임당의 비선소리가
덧잎에 묻혀 전해오는
그 자리에서 -

엑센트와 함께 떠나자!

검은 대나무를 닮았나?
오죽현 앞쪽에 세워놓은 모습이 당당해 보이는 차-
단단하고 야무진 모습에 마음 설레던 차-
속까지 꽉차 마음까지 든든한 차-엑센트
김대리어, 이번 주말 떠나보지 않으려나,
흙을 털어버리고 한번 멋지게 떠나보자고
언제나 든든한 친구 엑센트와 함께

구분	모델	엔진	출력	가격
1.5L	EX	1500cc	105마력	1,190,000원
	EX-L	1500cc	105마력	1,290,000원
2.0L	EX	2000cc	145마력	1,490,000원
	EX-L	2000cc	145마력	1,590,000원



“세상에 이렇게 검은 줄이냐-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고객상담센터
 1599-0000

월간 여성

월간여성 7월 통권342호

목 적 : 본회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단체의 발전과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 일에
여성이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4 女聲**
소득 1만불 시대의 해외바캉스 / 박금옥
- 특집/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정보화 시대는 여성들의 창조적 능력과 섬세한 특성이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 14 회원단체를 찾아서**
한국생활공예협회
- 16 해외여성통신**
임신, 제3세계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 김은주
- 20 여성학 지상강좌**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 / 박숙자
- 25 여성문화**
예코의 소설 '장미의 아픔' / 이세기
- 26 매스컴에 비친 여성/①**
방송 3사 뉴스에 대한 분석 / 이영주
- 31 매스컴에 비친 여성/②**
방송 3사의 연예정보 프로그램 / 윤명아
- 35 여성관련통계**
남녀 직업훈련원생 현황
- 36 초점**
구정고 내신성적 산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 39 환경정보**
환경마크제도
- 40 국제회의 참가**
세계주거회의 참가보고 / 오해란
- 43 손쉬운 요리**
약식 / 이연숙
- 44 여성계동향 / 이구경**
- 48 협의회 소식**
- 51 우리들의 광장**

소득 1만불 시대의 해외바캉스

박금옥 (중앙일보 편집위원)

지난 6월중순, 여름 휴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인데도 서울-비엔나를 주 1회 오가는 한국비행기 국제선 좌석은 꽉 찰 차 있었다. 비엔나에서 출발하여 브뤼셀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의 승객은 90% 정도가 한국인인듯, 외국인의 모습은 가뭇에 콩나듯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비행기안 분위기는 한국의 시외버스 터미널의 혼잡 그것과 흡사했다. 비행기에 오르자 우선 남편과 아내가, 친한 사람들과 좌석이 떨어져 있다고 우왕좌왕, 웅성거리는 단체 관광객들의 불평이 터져나왔다. 승무원들과 여행가이드는 우선 앉았다가 나중 비행기가 궤도에 오르면 옆사람들의 양해를 받아 자리를 바꾸라고 설득했다.

브뤼셀에서 1시간쯤 머문 후 출발한 비행기가 2시간쯤 나갔을까. 다시 웅성거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스카이 샵의 면세품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전처럼 수레에 물품을 가득 싣고 좌석사이를 누비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의 좌석앞 포켓에 마련된 주문서에 원하는 물품의 수량등을 기입하면 승무원들이 수거한 후 원하는 물건을 좌석으로 갖다주는 형식이었다. 아마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듯 했다. 그러나 옆사람이 물품을 받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승무원들에게 이것저것 주문하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은 먼저 주문받은 것들을 갖다준 후 다시 가져다 주겠다고 했지만 성급한 승객들은 조바심을 내며 옆사람에게 묻고 재촉하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10여불이 넘는 콤팩트를 10개나 사는 아주머니, 1백불이 가까운 코냑을 사는 아저씨들, 초코렛을 10상자씩 사고 양담배도 사는 사람이 많았다. 무엇이랴도 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 같았다. 지갑을 툭툭 털었다며 빈 지갑속을 열자리의 친지에게 보여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거센 바람이었다. 덕분에 스카이 샵은 곧 동이내고 말았다. 비단 비행기 안에서 뿐이라, 한국인 관광객이 지나가는 상점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이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지 얼마 안된 때문이고 처음 외국을 가니까 주변에 선물할 사람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아서일 것이다.

그럴수 있으리라.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 줄부도 못되면서 줄부 행세를 하려한다면 가랑이가 찢어지고 국제적인 우스개거리가 될 뿐이다. 오늘의 한국은 입을 것, 먹을 것이 정말로 흔한 나라다. 외국에 가서도 값과 질을 따져보면 그렇게 허겁지겁할 물건은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물건이 반드시 외국에서 사야할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이다. 여행할 때의 현명한 쇼핑은 그 나라만의 특산물, 문화상품, 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피나 가격이 부담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7, 8월중에 지난해 같은 기간의 79만7천명보다 30% 이상이 늘어난 110만명 정도가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한다. 이미 휴가 절정기인 7월말과 8월초의 인기 해외 관광지인 괌, 하와이 등은 물론이고 올림픽 특수까지 겹쳐 미국, 캐나다행 비행기표 사기도 하늘의 별따기라 한다.

한국인의 해외여행 경비는 지난해 1천660달러로 94년에 비해 16%가 는 반면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서 지출한 액수는 우리의 82.7%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외여행객들의 씀씀이가 커짐에 따라 올 1/4분기 여행 적자규모는 5억1천5백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70.1%나 늘었다. 따라서 적자속에 해외여행이 니만치 우리는 1만불 소득에 알맞게 쇼핑 행태도 세련되고 국제화 시대를 사는 매너도 익혀야 할 것이다.

특집

이석채 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

다음은 본회가 지난 6월 28일 이석재 정보통신부장관을 초청해 가진 여성정책간담회 내용을 녹음본이한 것이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들의 창조적 능력과 섬세한 특성이 잘 활용되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 섬세한 특성 등이 잘 활용되어야 하며 여성의 역할은 점차 커질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를 앞두고 능력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본도 여성들 밖에 없습니다.



<기조강연>

이렇게 많은 여성 지도자들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연숙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굳은 날씨에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보화혁명'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컴퓨터기술, 통신기술과 더 구체적으로는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정보전달 방법의 혁신, 광케이블 기술의 발전 등이 정보를

저장하고 뽑아내고 처리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서 정보화 혁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컴퓨터 기술이 발전을 하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정보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서 소련식의 계획 경제를 수식으로 완벽하게 계산해 낸다해도 이것을 빼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소련식 경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서로 결합했다는 것은 수많은 컴퓨터들이 서로 통신으로 연결되어 네트

워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네트워크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을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점차 발전이 되어 네트워크가 형성되니까 전에는 컴퓨터를 통해 문자로 대화하는 정도만 가능했는데 점차 음성과 화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 음성과 문자는 말할 것도 없고 HDT TV보다도 훨씬 더 뚜렷한 화면을 실제 시간에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도 한 국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현상이 정보화 혁명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기술은 칩 기술의 발전입니다. 칩의 계산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점점 작은 단말기에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칩이 발전하니까 교환기같은 데도 컴퓨터 칩이 들어가 우리가 전혀 쓰지 못했던 무선 통신이 활용가능하게 탈바꿈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광케이블이나 전화망으로만 형성되는게 아니라 무선으로 형성되면서 인공위성도 유용한 가치를 갖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처리, 교환하는 것은 라이브 액션으로 동시에 실제 시간으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소위 멀티미디어 세계 즉 신문, TV, 전화 등이 쌍방향으로 교류할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미국에서 폭설이 와서 모든 것이 불통이 되었을 때도 미국은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한시간 반가량을 아무 장애없이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서로 의사교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혹은 집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정보를 보내주고 의사교환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그 자체는 굉장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기여 통로가 열리고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의사와의 원격 진료도 가능해져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 등 온갖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2차대전 종말때 일본이 미국에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은 기술적으로 발달된 레이더망을 통해 일본이 움직이는 것을 미리 알고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옛날부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힘입니다.

그와같이 엄청난 정보가 축적이 되고 가공, 전송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최고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옷을 만드는 경우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나 스타일을 정보망을 통해 금방 뽑아낼 수 있다면 최적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재고를 최저로 줄이면서 항상 새로운 모델로 옮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납품을 하거나 받을 경우 과정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가령 그 모든 것을 정보망을 통해 순식간에 할 경우 기업 경영시 남보다 탁월한 우월적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상영되었던 영화 '쥬라기 공원'의 경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몇 억년전에 살았던 공룡들의 모습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기술만 있으면 엄청난 분야를 석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가장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광고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만들 수 있다면 시장을 석권할 수 있으며 제조업까지 종속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경제학의 제일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리카르도의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은 생산력은 input을 늘린다고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계에 가면 input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경제에 균형이 있으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시대가 오면서 이 법칙이 무너진

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거의 석권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거기에 따라 이 사회를 균형되게 하는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분배의 경우도 달라집니다. 예컨대 마이클 잭슨의 경우 예전에 그 사람의 노래는 C.D나 노래하는 현장에서 듣는 것 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real time으로 실재와 똑같은 형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어느 때나 원하는 사람은 마이클 잭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예술가나 성악가는 거의 모든 시장을 석권하고 그것보다 조금 못 한 사람은 시장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이 한 곳에 다 몰릴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만 동시에 이것이 무한한 시장을 열어줍니다.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수요를 창조해서 시장을 만들어 냅니다.

또한 정보화가 되면서 생산을 고도로 능률화하고 대신에 사람들의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여가를 활용한다 할 때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혁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법, 제도, 생활양식 등에 현격한 변화가 온다면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이사회를 할 경우 화상회의를 하면 현행 법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혁명을 산업혁명에 비유하는 정도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보화 사회에 뒤처지지 않고 정보를 잘 저장, 처리, 가공, 활용하느냐, 누가 정보화 산업과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에 더 많이 진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국가의 성패가 결정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것만 잘 활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압축성장과 짧은 시간에 경제발전을 하면서 대두된 문제, 우리나라 국토의 모양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먼 등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 여러 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망을 깔고 있으며 이 일에 대통령도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는 과거 지금의 선진국들이 약한 나라에 관대한 정책을 택해서 보호, 보조금 허용, 국산품 우선 쓰는 것 등을 허용한 것과는 달리 이제는 절대로 국산품 우선 사용정책을 하지말라는 것과 관세는 제로로 해라, 절대로 트릭을 쓰지마라, 하면 보복하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자기 정책에 대한 반성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시는 뒤처진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자질, 품성은 누가봐도 일본보다 정보화 시대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나 관행은 실제로 이런 잠재력을 살리고 있느냐 하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전체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 우선 망을 까는 것입니다. 지금 전화망을 깔고 있는데



현재의 전화망은 구리선으로 이것으로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구현하기에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광케이블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2015년까지 45조를 쓰겠다고 했습니만 문제는 광케이블로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도로를 팔 때 미리 광케이블이 들어가는 관을 같이 묻어서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있을 때 비용을 훨씬 줄여 선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광케이블을 한국통신 혼자하고 있는데 한국통신 한사의 능력으로는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기가 힘이 들기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는 전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에 해서 광케이블, 인공위성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데 이것을 한국통신 혼자하기에는 태부족입니다. 여기에도 민간이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는 망을 까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망이 다닐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여기에는 돈이 굉장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방의 경우 모든 것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서울로 오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를 이용하면 지방화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방에서도 세계에서 돌아가는 유명한 저널들을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려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짧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넣고, up to date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각 도서관에 있는 것, 각 협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단시간내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정보화 하는 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정보화 촉진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는 원격진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원격진료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어느 한 군데가 제대로 안되어서 안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돌아가게 하기위해 우리 국민들과 실무자들의 땀과 눈물, 헌신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것을 해내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정보화 계획실을 만들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관련된 엄청난 산업이 생기는데 산업을 지금의 형태로 두게되면 외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기술로 우리 산업화하느냐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예를 들면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단말기, 교환국, 기지국,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영화, 만화, 게임 등을 어떻게 육성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른 나라가 한국이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바로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존의 제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양보해서 이런 산업들이 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얼핏보면 우리나라의 초일류기업들은 무엇이든지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초일류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낙후된 분야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의 오너나 회사의 수뇌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그렇게 해 낼 수 있는데 반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많은 분야는 마치 큰나무의 나무가지 끝처럼 드리워져 있지 살아있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풀과 곡식도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두가지를 해야하는데 그 하나는 미국처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본을 모으고 그 다음 그것이 저절로 눈덩이처럼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팩스 아메리카나가 시들었다가 다시 꽃을 피우는 동안중 하나가 미국의 노동시장은 극도로

탄력적이고 동시에 자본시장의 여러 형태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밀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나오고 레즈 케이크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보통신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도 바꾸고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산업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면 수많은 기업이 생길 것입니다. 그 기업들 중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 전국의 망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기업을 이길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쟁정장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망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것이요, 이 나라의 것입니다. 또한 인공위성의 경우도 세계인의 것이며 그렇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공정한 가격으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성의 역할과 더불어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정부가 혹은 경제팀이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지금의 임금 수준, 지금의 근로 자세로는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2,200만명인데 이중에 300~400만명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고 7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나머지 1,800만명은 1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인구의 50% 밖에 안됩니다. 이 숫자는 세계와 비교하면 구라파보다는 많지만 일본, 미국, 대만 보다는 일하는 숫자가 10% 정도 적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나이가 들면 자기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를 풀고 더 나아가서 정보화 시대를 선도적으로 여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들에게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등 여러모로 축복입니다. 또한 여성들은 노무직이나 단순직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여성만이 갖고 있는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 섬세한 특성 등이 잘 활용되어 엄청난게 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매달 한 번씩 그 달의 소프트웨어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낸 개발자들에게 상을 수여했는데 6번중 2번이 여성기업인이 만들어낸 상품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발팀중 약 28%가 여성이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보화 사회를 열기 위해서는 능력있고 열린 마음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열고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간에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자를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88년에서 '89년 사이에 KDI에서 일년간 보내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동시에 이룰 수 있겠는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역사를 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를 살펴보니 성공한 나라는 결국 능력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을 바로 가진 사람, 즉 남과 더불어 협력해서 살 수 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정보화 시대에 중요한 여성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시대는 잘못하면 개

인주의화되고 마음은 더 삭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는 서로 단합, 협력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중에 만들어지며 이것을 키워낼 수 있는 분은 여성들 밖에 없습니다.

저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뜻있게 받아 들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은 흔히 교육이 어떻다, 학교가 어떻다 이야기하는데 학교는 문(問)입니다. 가르치고 듣게 합니다. 가정과 사회는 견(見)입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가정과 사회에서 한번 잘못보면 뒤집어 집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게 여성들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을 더 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될수록 남자가 점점 더 평등해질 것입니다. 제가 가정이나 사회에서 느끼는 것으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진짜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여성 대통령이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성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21세기 지향적으로 움직여주시면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나라 자체는 일류 국가가 되고 우리 국민들은 행복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성들도 여러가지 면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 한영애(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정보화 시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3.5%라고 경제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다행히 대기업의 여성인력활용이 점차로 증대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사회현실은 여전히 남녀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특징이 여성에게 있다고 한다면 정보화 시대의 업무중 어느 직종의 어떤 점이 여성에게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정책적으로 밝혀 프로그램화해서 정부에서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여성들을 재교육시켜 전문직으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 이장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과 관련해서 특별한 정책 구상을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정보화 시대는 온 국민, 모든 부처가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양순(신한국당 국회의원): 정보통신부는 과학의 최첨단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인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통신의 노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사내 여성 교환원중 VDT(건강관장애) 증후군을 보이는 직업병 환자가 32%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만 하면 요양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양후 복직되었을때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감시 감독이 소홀하다고 합니다. 또한 직업병으로 판정되기 이전에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체조를 개발하는 등 건강관장애 예방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 이장관: 한국통신의 교환원중 대충 3% 정도가 VDT 증후군이 있다고 판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복직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고, 여러가지 예방을 위한 운동과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 이청자(한국여성개발원 협력부): 저희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여성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추위에서 이미 여성발전 10대 과제의 하나로 의결되어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부터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전산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이 장관님께서 여성들이 정보화 사회에 참여해서 함께 일할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여성들이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정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체에 장 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관: 여성정보 네트워크는 7월 1일에 출범하는 정보화 기획실에서 정보화를 하기 위한 실천적,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 문현경(대한영양사회 부회장): 지금 우리나라 식생활이 여러가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영양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위원회에서 영양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의 개발뿐 아니라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개발도 요청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 이장관: 예전에 이 부분을 연구사업으로 신청하셨다가 정부가 주는 금액이 적어서 포기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부분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리는 습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진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 한정자(중앙부인회 이사): 선거시기에는 선거홍보에 따른 우편물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우편물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을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우편업무의 분리 배달을 하는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또한 매번 우표값이 예고기간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올랐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표값 인상을 알 수 있고 또한 우편값을 올려야 할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체국에서도 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창구의 서비스가 불친절 합니다.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서비스를 개선해 주시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대민 서비스 개선방안이 없으면 차체에 우편업무를 민간에 이양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 이장관: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민영화 문제는 일부 외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할 때 우편이라는 것이 수지가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으로 농촌, 벽지, 도서지방 등이 그 예인데 민영화를 할 경우 크럼 서비스라고 해서 수지가 맞는 곳만을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 어느 지역에 살든 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중추기능이기에 국가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표값의 경우 해마다 임금인상 및 인원이 총원되고 시간은 많이 걸려서 우편 비용은 굉장히 올라가고 우표값은 실제 비용의 70% 밖에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원가의 20%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우표값을 올려야 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만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민 서비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직원들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친절환 직원들에 대해 해마다 표창도 하고 해외여행도 시키고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희(본회 근로여성위원): 정보통신부 내 여성공직자 비율은 전체 35,000명중 28%를 차지하고 있

으며 이는 일반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가장 높은 직급은 무엇이며 과장급 이상 간부는 몇 명이나 되는지요. 또한 전체 28%중 80~90%가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승진, 배치에 남녀 차별이 없는지요. 기능직 군 중에는 1~10급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하위직급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속시 승진할 수 있는 TO 조정이 되어 있는지요.

또한 기존여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직장 타 아소가 있는지요.

정보통신부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장관: 현재 과장급 이상은 국제협력과에 과장으로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관리직에 남성에 비해 훨씬 적게 진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 같습니다.

기능직 종사자는 1~10등급까지 있는데 평생 근무하더라도 7등급이나 8등급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녀 모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등급을 조정해서 상위 직급의 TO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현될 것 같습니다.

탁아소는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 근처 전산관리소에 한 곳 있습니다. 탁아소는 여성들의 공통의 관심사이고 일하는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탁아소를 직장 근처에 두느냐, 집 근처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보며 탁아소는 어디가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특히 이화여대에서는 정보과학대학원, 센타 등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여성전문인력을 많이 키우고 있으므로 이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국제존타한국연합회): 정보화 혁명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 성인들이 정보화 혁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보통신부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국영방송이나 교육방송을 통해 하루에 30분 정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장관: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방송과 언론사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언론에 빠지지 않고 실리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 보는 것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는 정보화 센타가 있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도시에서도 가정 주부들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 박영혜(본회 부회장): 프랑스의 경우 1980년 후반기에 미니텔이라는 작은 컴퓨터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야길 들으니까 더이상 학생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물론 컴퓨터 보급은 해야하지만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창의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컴퓨터의 활용과 더불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제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이장관: 프랑스의 미니텔 보급은 정책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유익하게 느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여성 여러분들도 직접 컴퓨터를 다루셔서 아이들이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불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원단체를 찾아서



임기선 (이사장)

한국생활공예협회

한국생활공예협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공예창작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 및 취미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국민정서생활 향상과 생활공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한국생활공예협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공예창작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 및 취미생활의 향상을 기하고 국민정서생활 향상과 생활공예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생활공예 활성화를 위해 제각기 흩어져 있는 기존의 생활공예를 하나로 흡수해 생활공예의 뿌리를 찾기위해 단체를 설립한 임기선 이사장은 생활공예는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실리를 살리는 것은 물론 예술적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강한 생활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한국생활공예협회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공예창작활동(한지공예, 스텐실, 생활도예, 불페인팅, 필트, 알공예, 지점토, 컬러 믹스, 홈패션, 수직, 석화,

금속 등)을 통하여 건전한 여가, 취미생활의 향상을 기하는 생활공예 저변확대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신경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공예활동치료법으로 환자들의 치료를 도우며 무료봉사도 벌이고 있다.

선조들의 전통생활공예의 맥을 찾아 현재 생활에 보급하고 새로운 공예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발, 보급하는 것이 생활공예협회의 목적이기때 우리 것을 아끼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 급격하게

밀려오는 외래문화의 홍수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기법을 꾸준히 연구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한국생활공예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취미활동 홍보 세미나

전국의 백화점 문화센터, 복지관, 주부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지



안정·제시·심심

선조들의 전통생활공예의 맥을 찾아 현재 생활에 보급하고 새로운 공예를 우리 현실에 맞게 개발, 보급하는 것이 생활공예협회의 목적이기때 우리 것을 아끼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앞장서 급격하게 밀려오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재료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현대 생활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기법을 꾸준히 연구 보급하고 있다.

도자(강사)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취미활동을 위해 홍보 및 각종 강습회를 통하여 생활공예를 보급하고 있으며, 강사자질 향상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작품전시회, 강습회, 강연회를 통해 생활공예 전국 규모의 확산 보급 전국 시, 도별 지방자치 단체별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지방문화재 행사에 참가하여 생활공예를 확산 보급하고 있으며 강습회, 강연회 등에 대한 공동연구 및 주최를 통

해 생활공예 문화축매 역할을 하고 있다.

▲ 연구발표회 및 성공사례 발표회 생활공예 발전을 위한 연구발표회 및 성공사례 발표회를 통해 공방운영자에게 생활공예 저변확대 전수 사업을 한다.

▲ 회원의 자질 및 생활공예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국의 전문인 초청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

으며 우리 생활에 맞게 연구 개발하는 교육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생활공예 전문대학 설립 추진 초·중·고 교사 초청 학술세미나, 실습발표회를 통해 생활공예 업계 개발과 생활공예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지속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대한민국 생활공예대전(공모전) 개최, 순회전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고 회원들의 작품수준을 향상시키며 전국 시·도별 순회 전시를 통해 생활공예 전국규모로 확산,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 연구자료

생활공예 모음집, 생활공예도감, 생활공예회보 등을 발간하여 연구자료로 개발 보급한다.





임신, 제 3세계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김은주 (연합통신 외신국 기자)

제3세계에서는 임신이 여성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존스 홉킨스대학이 6월 11일 발표한 공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하루 1천6백명꼴로 매년 약 58만5천명의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세계 여성의 임신, 주요사망 원인이 되고 있어

제3세계에서는 임신이 여성의 주요한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WHO), 존스 홉킨스대학이 6월 11일 발표한 공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는 하루 1천6백명꼴로 매년 약 58만5천명의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유니세프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보건상황에 관한 보고서인 <세계국가 발전>의 일부로 작성된 것으로 출산중에 사망하는 여성이 증가함으로써 매년 최소한 1백만명의 고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원인중 가장 많은 것은 출혈과 패혈증이며 불법 인공유산 그리고 임신자간증이나 임신중독증에 의한 뇌 또는 신장 손상도 적지않다.

조사팀은 개발도상국들이 가족계획서비스만 개선해도 여성들의 이같은 임신관련 사망을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함께 공중보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영양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약 2백만명의 여성이 할례를 당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출산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산모사망률: 개발도상국에서는 매년 여성 58만5천명 정도가 출혈, 패혈증, 불법 인공유산 등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사망한다.

▲ 생존 출생 10만건당 산모 사망률: 노르웨이 6명에 비해 시에라 리온 1천8백명, 아프가니스탄 1천7백명, 나이지리아의 경우 1천명에 이른다.

▲ 여성 1명당 자녀 출생률: 앙골라, 코트 디부아르, 베냉, 말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7명, 이란, 캄보디아, 니카라과, 아이티, 온두라스 5명, 인도 3.7명. 반면 중국, 미국, 스웨덴, 태국 2명, 독일 1.3명에 불과하다.

▲ 어린이 1천명당 5세이하 유아사망률: 니제르 3백명, 에티오피아, 앙골라, 아프가니스탄 2백명, 세네갈, 수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 아이티 1백명, 필리핀, 니카라과, 브라질 50명, 벨로루시, 루마니아 20명이상, 한편 독일은 7명.

▲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연간 8백만명의 어린이가 사망한다.

▲ 출산 1천건당 10대(15~19세)가 차지하는 비율: 미국 64건, 러시아 37건, 영국 33건, 폴란드 28건, 캐나다 27건, 이스라엘 20건, 프랑스 9건, 일본 4건

▲ 가족계획예산 비율: 개발도상국 보전예산중 2% 이하이며 모든 국제원조중 2% 이하이다.

▲ 여성에 대한 할례(성기절제)의식: 매년 2백만명의 소녀가 할례에 희생되고 있다.

▲ 전체 신생아중 저체중(영양실조)아의 비율: 인도 33%, 방글라데시 5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7%

미국정부, 할례 도피 여성에 정치적 망명 허용

할례(FGM) 받을 것이 두려워 미국으로 탈출, 망명을 신청했으나 불법 난민 판정을 받고 수감됐던 한 토고 여성에게 6월 13일 미국 이민항소위원회가 최초로 정치적 망명을 허용함으로써 앞으로 할례에 대한 공포가 망명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이 소녀가 속한 부족인 참바-콘순부 부족이 행하고 있는 할례가 "박해"에 해당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는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할례를 당하게 되고 지역 당국이 해당 여성을

할례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만 망명이 허용됐다.

또한 이미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거부했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적 곤경"에 처하게 되거나 살고있는 지역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정도로는 망명을 허가하지 않았다.

올해 19세의 파우지야 카신가양은 부족의 관습인 할례를 받기 이틀전 토고에서 도망쳐 94년 12월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미국에 도착한 직후 망명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8월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으로부터 망명신청을 기각당했다.

그녀는 16개월간 뉴 저지주 이민귀화국(INS) 교도소에 수감돼있다가 지난 4월말 이민항소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함에 따라 석방됐다.

할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종종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살균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해 실시돼 감염을 초래하거나 성교시 고통을 일으키며 임신과 관련,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여성 인신매매 근절 대책 논의

유럽집행위원회는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빈에서 유럽에서 여성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니타 그라던유럽연합(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의 주재로 15개 EU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동유럽의 EU가입 희망국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대표들은 여성의 인신매매와 관련, ▲ 불법 이민과의 연계 ▲ 처벌 강화 ▲ 희생자 지원 및 ▲ 목격자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EU에 따르면 매춘을 목적으로 EU로 인신매매에 들어오는 외국 여성들의 수는 최근들어 급증, 많은 유럽국가들의 경우 홍등가에서 현지 매춘 여성들의 수보다 외국인 매춘 여성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에는 매춘여성의 75%, 이탈리아에는 80%, 오스트리아에는 85%가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 외국 여성 모두가 매춘을 강요받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착취의 희생이 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EU집행위는 이들 여성이 마약·무기 불법거래자들의 손아귀에 쉽사리 걸려들고 있으며, 이들 지하조직은 여성들을 "수지맞는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여성들이 댄서나 웨이트리스로 취직시켜주겠다는 인신매매조직의 제의에

속아 고향을 떠나는데 일단 국경을 넘은 후에는 여권 등을 빼앗기고 매춘을 강요 받아 에이즈같은 질병에 노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주로 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라틴 아메리카(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그리고 동남아(필리핀, 태국) 등 개발도상국들에서 여성들이 여전히 이같은 불법적 목적하에 모집되고 있다.

인신매매집단들은 흔히 특정 국적의 여성들을 특정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들은 주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태국 여성들은 네덜란드나 독일로 보내지고 있다.

게다가 동구권에서 공산정권이 몰락하면서 서방에서의 보다 나은 생활을 꿈꾸고 있는 동구 여성들이 최근들어 쉽게 범죄 조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여성 인신매매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유럽에 끌려와 매춘을 강요받은 개발도상국 여성들이 주류를 이뤘으나 오늘날에는 발트 3국과 중구 및 동구 국가들에서 온 여성들이 대다수"라고 그라던 위원이 밝혔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인근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이같은 여성들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산정권이 붕괴된 직후 동유럽으로부터의 여성 인신매매 적발 건수가 50건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3백18건으로 급증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대상 여성들의 연령은 4분의 3이 25세 미만이며 특히 동유럽 출신은 15세에서 18세 사이가 많은데 "고객"들이 에이즈에 감염될 것을 두려워해 인신매매조직이 갈수록 어린 여성을 겨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인데 스웨덴인인 그라던 위원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투쟁은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마약밀매범은 징역 10~12년형을 받지만, 인신매매범은 불과 1~2년의 단기형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라던 위원의 보좌관인 마리게 반 헤밀르크 여사는 현행 법체계가 "고객"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반면, 피해여성들로 하여금 인신매매와 관련,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조치의 하나로 법정 증언을 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의 설치를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물 : 하시나 와제드 방글라데시 신임 총리

방글라데시의 아와미연맹 지도자 셰이크 하시나 와제드 여사가 6월 23일 방글라데시 사상 두번째 여성총리로 취임했다.

지난 75년 쿠데타에 의해 살해된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대통령의 딸인 하시나 신임 총리는 두 여성 당수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던 지난 12일의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아와미 연맹이 배금 칼레다 지아 전 총리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을 물리치고 의회내 최대 단일 정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21년만에 재집권하는데 성공했다.

하시나 총리는 아와미 연맹 지도자로 오랫동안 고독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정치 역정을 걸어왔다.

하시나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이끌어낸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총리의 딸로 아버지 무지부르가 군사 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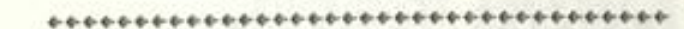
데타로 축출되고 전 가족이 피살되는 불운을 겪었다.

쿠데타 당시 독일에 체류중이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녀는 지난 81년 6년 동안 망명생활 끝에 귀국한 이후 아와미 연맹 지도자로 후세인 무하메드 에르샤드 군사정권 축출을 위해 투쟁, 91년 에르샤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정권 수립의 길을 열었다.

하시나는 91년 총선에서 BNP의 지아당수에 패배했으나 지난 2년 동안 지아 총리 정부에 대해 중립 과도정부 하에서 총선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파업, 시위 등을 벌여 지아 총리는 결국 이에 굴복, 지난 3월 사임했다.

아버지의 리더십을 물려받았으며 온화하고 친근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하시나는 핵물리학자인 와제드 미아와 결혼, 1남1녀를 두고 있다.

그녀는 자유시장 경제정책, 다당제 민주주의 실시 등을 공약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빈에서 유럽에서 여성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대표들은 여성의 인신매매와 관련, 불법 이민과의 연계 처벌 강화 희생자 지원 및 목격자 보호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전략

박숙자 (연세대 여성연구소 전문연구원)

여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여성들의 분산된 힘을 결집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수렴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여론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해결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성단체들간의 연대강화, 적극적 홍보를 통한 여성문제의 여론화, 의식화 작업, 일반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모색이 필요하다.



1.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성문제

21세기를 앞두고 각계에서는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한창이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경제성장과 발전보다는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사회, 즉 인간관계의 회복이 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관계도 보다 평등해 질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홍빛 기대에 만족하고 있기에는 현재 한국여성의 상황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하다.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 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세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근 국제연합 개발기구(UNDP, 1995)의 비교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7개국 중 59위,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세계 55개국 중 54위, 행정관리직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116개국 중 112위이며, 여성세력화지수는 116개국 중 90위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제경영연구소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

쟁력에 대한 공동보고(1995)에서도 한국은 조사국들 중 남녀고용에서 가장 차별이 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의 발전과 성장과정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배제되어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낮은 임금은 그들이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차별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임금뿐만 아니라 채용기회에서도 배제, 승진, 훈련, 정년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불리하며

주로 승진이 안되는 낮은 직종에 여성들이 몰려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고용상의 차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대우이다. 남편에게 구타당하고 있는 여성이 도처에 있으며, 어린 아이에서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무차별한 성폭력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폭력을 제재할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방치는 학교에서의 폭력, 직장에서의 성희롱 및 폭행 등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가정폭력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로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성들은 교육, 의료서비스 등의 기회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고등학교 진학시험에서 성차별적인 합격선이 수년간 지속되어옴으로써 여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기회가 제한되어왔다는 사실은 교육기회면에서의 성차별이 표출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교육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여성의 성취동기를 약화시키고 여성의 진로모색을 제한된 영역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한편 건강과 관련된 여성문제는 남아선호에 따른 임신중절수술의

만연화를 들 수 있다. 성비불균형이 가장 심한 나라로 꼽히고 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인 성비조절의 일차적 피해자는 여성이다. 딸만 낳은 여성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 외에도 명목적인 낙태금지법에 의해 여성들은 임신중절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여성이 감수하게 되어있다. 또한 남성들의 그릇된 성문화인 매춘산업의 번창으로 여성들은 상품화되고 여성의 인신매매와 같은 야만적인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관행과 이데올로기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시 사회화되고 있다. 광고와 드라마를 통해 그려지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는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남성에게 의존적이고 열등한 존재로서, 또는 소비와 사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기적인 행동들이 여성의 자유이고 해방인양 잘못 그려지고 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인내와 희생만을 강조하는 여성을 바람직한 며느리, 바람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다시 재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살고있는 여성들은 그러한 여성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남성들이 원하는 이미지의 여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우리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곳곳에 산재해 있

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개혁과 여성들 스스로의 자각에 따른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현재 사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거의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다. 정부 장관직이나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모두 5% 미만으로서 아시아 국가들중에서도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10분의 1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부진으로 인해 여성에게 불공평한 가족법을 개정하는데 20년이상이 걸리고, 매맞는 여성을 보호할 가정폭력방지법이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 즉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급선무라고 하겠다.

2. 여성문제와 여성운동, 여성단체와의 관계

위에서 지적한 우리사회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제 더 이상 여성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들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여성계몽운동 등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 하겠다. 1960년대 들어 시작된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가 확대되면서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불공평한 지위에 대한 저항이 점차 조직화된 세력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의 수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얻어내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나 대우를 해소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운동차원에서 노력은 70년대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하여 80년대에는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등의 법제도상의 성과를 얻어내었고, 90년대에 들어서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운동과 고용평등을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 성폭력 추방 활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의 성과는 개별여성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힘을 통한 체계적인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여성단체의 조직화된 활동에 기반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조직력과 활동목표, 사업계획 등은 우리사회 여성운동의 과제와 밀접히 관련될 수 밖에 없으며, 각

여성단체의 활동방향은 바로 여성운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 전국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여성단체의 수는 무려 4,00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에 공식 등록된 단체는 1994년말 현재 62개 단체에 불과하다. 정부기관에의 등록여부를 가지고 단체활동의 적극성을 논할 수는 없으나 여성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는 단체의 수는 매우 국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59년 발족)와 한국여성단체연합(1987년 발족)이라는 두개의 여성단체들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많은 여성단체들이 문제발생시마다 연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여성계의 수립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수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여성단체들이 공히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여성고용목표제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3.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여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여성들의 분산된

힘을 결집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수립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여론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압력단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해결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몇몇 선각자적 여성의 노력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의 단합된 힘을 통해 제도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은 크게 다음의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여성단체들간의 연대 강화:

여성단체들간의 긴밀한 접촉과 정보교환, 그리고 연대를 통한 대규모적 힘의 과시는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여성단체들은 이념이나 기본정신, 그리고 참여하는 여성들의 주요관심사나 배경 등에 따라 서로를 차별화하고 길을 달리해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분열된 힘은 약해질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다수의 의견을 중시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개별 여성, 개별 단체의 의견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가족법 개정에 백여개의 여성단체,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법개정을 이룩한 경험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위한 법 제정에 수많은 여성단체가 참여한 것 등 여성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이 이루어낸 성과는 적지 않다. 물론 각 여성단체마다 단체

고유의 활동목표가 있으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와 조직강화도 단체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각 여성단체는 이들 고유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이념과 관심사를 초월한 범여성연대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인식하고 공동연대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2) 적극적 홍보를 통한 여성문제의 여론화, 의식화 작업:

우리사회의 여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성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여성문제의 해결이 우리 모두의 공통과제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작업, 다시 말해서 여성문제의 여론화 작업도 또한 하나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여성단체에서는 공청회나 가두 캠페인, 그리고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여성문제가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든 여성들의 문제이며 이는 나아가 바람직한 남녀간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초가 됨을 인식시키고 더 많은 여성들을 동참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3) 일반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모색:

여성문제는 과연 여성들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문제를 남성들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성의 문제는 결국 남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들만의 의식변화로는 해결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남성들도 여성들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남성주도의 일반 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전략에 구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여성운동의 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

1) 여성의 정치세력화:

여성들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이 직접 참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급선무이

다. 각종 위원회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할당제 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이다.

2)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차별 철폐:

현재 고용상의 성차별 철폐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제도적인 성차별 철폐조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여성계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또한 중고등학교 성적 산출에서의 남녀분리는 엄연한 성차별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중심의 사고에 의해 유보상태에 있는 실정으므로 하루빨리 시정되

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관습과 관행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다양한 성차별적 행태들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능케하는 지원체계의 확립: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10대과제를 보면 탁아시설의 확충, 방과후 프로그램의 실시, 학교급식의 전면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과제들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인 지원체계로서 조속한 시일 내의 실시를 위해 여성단체들은 압력단체로서의 감시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실시를 취업여성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과 영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조속한 실시를 위해 여성계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4)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비판 및 대안문화의 창출:

왜곡된 성차별적인 대중문화의 위력은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매스컴 모니터링을 할 때에도 여성에 대한 문제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남성문

화의 묘사, 부모자녀관계의 묘사 등을 함께 분석하여 올바른 가족관계를 보여주도록 감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방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몽, 홍보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 활동에 있어서도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과방송을 받아내는 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이미 한번 매스컴을 통해 방영된 것은 일반 시청자에게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왜곡된 성차별적 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건전한 남녀관계에 기반한 대안문화를 창출해 내는데 여성들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5) 일반여성 및 남성에 대한 의식화 작업:

일반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타파할 수 있는 의식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단체의 활동은 주로 회원들간의 친목과 교양교육, 자질향상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일반여성,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도층 사람들은 남성들이며, 이들이 갖고 있는 가부장제적 성 고정관념은 거의 변하지 않는 상태

에서 여성들의 의식만 변화하는 것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남성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식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여성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홍보와 여성과 남성이 결코 능력이나 감정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의식의 계몽활동 등 대 남성 공략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다.

6) 공동체의식의 회복:

현대사회의 가족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또는 개인 단위의 소외현상은 점차 심각해 가고 있다. 이제는 개별 가족단위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이웃의 소외된 여성, 피해받는 여성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의식의 회복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 소외된 여성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하며 불우가정과 건강한 가족들간의 연결사업을 여성단체에서 주도적으로 벌임으로써 일회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의식을 확립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에코의 소설 '장미의 이름'

이세기 (서울신문 출판편집국 기획위원 · 소설가)

베스트셀러 소설이라고 하면 일찌기 문학성과는 거리가 먼 오락용 읽을거리로 치부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이며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은 예상치 못한 신선감과 충격을 소설 곳곳에 담고 있다.

이 소설이 국내에서 출판된 것은 벌써 10년전이지만 하필 이 소설을 소개하는 까닭은 책이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울지도 모른다는 선입감 때문에 아직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 에코 소설만의 특별한 재미와 높은 작품성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더구나 92년 개역판이 나온 이래 현재까지 28쇄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독자의 관심의 순위에서 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첫째 이 소설은 향기로운 지식의 보고이다. 또한 미스터리적 소설 구조와 종교소설적인 요소를 고루 갖추고 '기호학이란 무엇인가'를 침묵하고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기호학 입문서와도 같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예를들어 이탈리아 프라체스코 파 수도원의 이단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교황의 밀명을 받고 파견된

윌리암 수도사는 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수도원의 외관만을 보고도 "기름진 수도원이지만 원장이 공공연히 대중의 기를 죽이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수도원의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자 "수도원장의 말을 잃어버린 모양인데 그말은 말의 이름이 '브루넬로'라는 것까지 알아맞춘다. 그는 자연이라는 거울에 비친 비언어적인 거울을 통해 수도원장의 말의 모습을 명료하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신학자이자 철학자, 미래의 자동차와 비행기의 출현을 예고하는 예언자이기도 한 그가 수도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살인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문자그대로 스릴과 서스펜스에 넘쳐 팽팽한 긴장감을 잠시도 멈출 수가 없다. 또한 타당성과 당위성, 과학적인 측면이 빈틈없이 제시되어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서'의 예언과 일치함을 보인다.

조사과정에서 윌리암 수도사는 범죄의 의도가 단순한 살인이 아닌 종교분쟁과 한 권의 금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교하게 설계된 미궁의 장서관에 도전하여 문제의 금서를 찾아내고 그는 마침내 살인범에 접근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엄청난 계도 거대한 전쟁, 말하자면 교조주의 신학과 인문주의 신학, 신과 인간, 믿음과 이성, 천사와 악마, 인간적인 회의와 악마적인 확신의 전투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외롭게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어린 수도사 아드소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드소,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저를 대신해서 죽게하는 법이다. 진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쫓아야 할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겠느냐."

이 책은 재미로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윌리암 수도사의 명철과 과학적 수사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면서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우리는 유식해진 행복감에 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방송 3사 뉴스에 대한 분석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감당하고 있는 TV 뉴스가 정말 믿음직한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모니터하게 되었다.



매스 미디어는 일상에 바쁜 현대인들에게 세상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TV는 정보, 교양, 오락 등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TV의 기능 중 정보를 담당하는 뉴스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꼭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락성에 치우친 TV의 폐해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신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많지만 TV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사람들은 뉴스의 대부분을 TV를 통해서 접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감당하고 있는 TV 뉴스가 정말 믿음직한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모니터하게 되었다. 대상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KBS1 '9시 뉴스', MBC '9시 뉴스', SBS '8시 뉴스'이며 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였다. 모니터 기간동안 대상 프로그램을 전부 녹화하였고 주요 뉴스에 대해서는 신문과 비교 검토하였다.

뉴스의 소재 및 내용

정규 뉴스는 40분 내지 45분 정도의 시간에 아주 다양하고 많은 양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방송 3사에서 다룬 6월 3일 뉴스를 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

방송사마다 25~30 꼭지의 뉴스를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문화 등으로 다채롭게 다룬다. 모니터 기간동안 다루어진 뉴스를 내용별로 보면 대략 정치뉴스가 약 40%, 스포츠 10~20%, 경제 5% 그리고 문화 1~5%이다. 정치, 사회뉴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경제, 문화는 아주 적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꼭지수별 비중이 아니라 시간배분별로 보면 정치, 사회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종류의 내용을 다루다보니 백화점식 나열에 급급하여 각각 뉴스가 가지는 비중에 따라 내용의 경중이 달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뉴스나 중요치 않은 뉴스나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헤드라인 뉴스만이 2~3꼭지로 나뉘어 다루어진다. 이처럼 많은 뉴스를 맛보기식으로 다루는 것은 뉴스의 오락성으로 본다. 재미있게 여러

(표 : 6월 3일 방송 3사 뉴스 소재 및 내용)

	KBS1	MBC	SBS
1	증권 감독원 구속	중산층 상속세 경감	수뢰간부 더 있는 듯
2	증시 폭락과 자성	졸업까지 입영연기	성공적 개회 최선
3	업무 투명성 제고	월드컵 준비 만전	대통령 동정
4	ASEM 개회 결정	공동개회 전폭지원	2002년에만 공동개회
5	공동개회 첫 논의	내일 한·일 재회동	공동개회는 잘된 일
6	대통령 동정	5조원 시장 공략	한적 통해 대북지원
7	하시모도 일총리 한일대화 협조	증감원 간부 3, 4명 수뢰	북, 리처드슨 통해 쌀 10만톤 지원요청
8	문화대국 보여준다	소문이 사실로	북에서 온 편지
9	문화경쟁도 한몫	실업급여 임금 50%	서울에서 개회
10	오토바이 개조 처벌	축제가 싸움으로	부품값 3~5배
11	공사 표시판 부실	눈속임 저울	배우자 상속 면세
12	배달길 공용도로	과묵한 3백만평	밀수품 폭력 낙찰
13	회생정신 기린다	개발이나 보존이나	5.17 비상계엄 확대과정 심문
14	샛바느질 1억 기증	CD롬 교재 선릉	단독개원 실력저지
15	내달부터 실직급여	전자과 공포	입영연기 조건 완화
16	중산층 부담 경감	개원국회 강행 저지	실직수당 월급의 50%
17	출국신고 간소화	11차 공판	빈번한 해적질
18	정보범죄대책본부 발족	경쟁률 3.5대 1	샛바느질 1억 회사
19	개원방침, 실력저지	입찰폭력 적발	맛조개 폐사
20	12·12 증거조사	ASEM 서울 개회	동치, 풍어 가격 폭락
21	미디어벨리 설립	강도추격 사망 시민 국민포장	두부값 슬며시 인상
22	상이군인 사기	단수지역 안내	물 받아 놓으세요
23	이산가족 편지	중국어선 해상강도 처벌 촉구	고속도로 신설구간
24	물 단수	샛바느질 1억, 심장병수술 지원	아이디어 백태
25	학교폭력 신고센터	국군 1363부대 정보문화 대상	날씨
26	고속도로 신설	오늘의 하이라이트	
27	동아일보 사장선임	날씨	
28	주민의견 선거		
29	영상취재		
30	날씨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청자의 시선을 붙잡아 놓기 위한 방편이지 시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소

홀히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심층보도 미흡

6월 5일에 방송 3사가 첫 뉴스

로 '첫날부터 파행'(KBS1), '개원국회 파행'(MBC), '15대 국회 첫날부터 파행'(SBS)이라는 소재로 국회파행을 다루었다.

보여주는 그림은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이었고 멘트는 국회의 열리지 못하고 원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는 내용이었다. 국회의 열리기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되었던 일이었으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을 읽지 않고 TV에만 의존하는 시청자들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멘트는 사건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정작 무슨 일이 일어났는 지는 모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뉴스를 접하고 점점 진실과는 멀어지고 사건의 겉질만 알면서 내용을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한다.

여기에 대한 6월 5일 '한겨레신문'을 보면 '등원 막판 협상 결렬'이라는 제목으로 '여야 총무들이 5일 오후 6시, 2차 회담을 열었으나 신한국당의 서청원 총무가 회담직전에 소집된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결정된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결렬됐다'는 개원을 위한 막후접촉을 알리고 있다.

TV는 신문과 달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뉴스를 끌어서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심야시간대 뉴스에서는 사건의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다거나 전문가의 논

평 등 여러 형태로 심층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심야뉴스는 시청층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진실을 알리고 깊이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제약을 받는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었으면 좋겠다. 시간대별로 뉴스의 내용을 차별화하는 것도 시청률을 고려한 제작이라고 보는데 TV 프로그램에서 뉴스만큼은 시청률을 떠나서 방송 본연의 책임과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표에서 보여주듯이 소재만 보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문화경쟁도 한 몫', '경쟁률 35대 1', '빈번한 해적질' 등 제목만 보아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물론 TV는 말이나 글자보다는 화면으로 설명을 하는 매체이기는 하나 이왕 제시되는 제목이라면 내용을 포함한 제목이 화면과 함께 나온다면 내용을 전달하는데 더 보탬이 될 것이다.

뉴스의 공정성

뉴스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어떤 사건이든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사건의 허와 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방송사마다 각자의 견해나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 사건에 대한 논평이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 각각

의 입장을 공정하게 밝혀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앞서서도 예를 든 '국회파동' 뉴스의 경우 집권 여당의 원인 제공이 크게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장외투쟁만을 저급한 정치 수준으로 비난하는 강도가 높다. 이렇게 형평을 잃은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뉴스로서의 가치도 하락할 것이다. 또한 시청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뉴스를 보도하는데 있어서 표면으로 나타나는 사실과 함께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판단은 시청자가 할 수 있도록 논평을 자제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중앙일보'(6월 5일)는 야당측의 주장(1. 여당의 추가영입 중단 약속, 2. 부정선거조사 특위구성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 3.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요구)과 여당측 입장(여, 야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신한국당은 협상이 실패할 경우 본 회의에서 신한국당 및 무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단 선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같이 다루고 있다.

6월 3일 MBC 뉴스에서 '개발이나 보존이나'에서 개발에 따른 땅값상승, 편의시설 제공, 발전이란 측면에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하리라고 보는데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측 인터뷰는 없고 보존하는 쪽으로만 보도하고 있다. 환경훼손이 심각한 때에

국가적, 인류적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나 그에 따르는 주민들의 고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환경보호라는 명제하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조건 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편파적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6월 4일의 '어린이 탈모증' 보도에서 조기 입학제로 인한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어린이 탈모증의 가장 큰 원인은 맞벌이 부부, 이혼부모 증가로 인한 자녀와 부모의 단절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이 어린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나타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가 탈모의 주 원인인 양 보도하며 조기입학제와 연계시켜 조기입학제의 폐해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보도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남녀 앵커 및 기자의 역할

다른 시간대와 달리 방송 3사의 '8시, 9시 뉴스'는 남녀 앵커가 공동 진행을 하고 있다. KBS1은 류근찬, 황현정 앵커가 맡고 있고 MBC는 엄기영, 백지연, SBS는 김형민, 한수진 앵커이다. 정치, 경제와 같은 주요 뉴스는 남

앵커가 진행하고 환경이나 단신 등은 여자 앵커가 맡고 있다. 시간의 비율도 남앵커 70%, 여앵커 30% 정도이다. SBS(6월 5일)의 경우 전체 뉴스 시간 40분 24초 중 남앵커가 28분 31초를 진행했으며 여앵커가 11분 53초를 진행했다. 취재기자의 경우는 더욱 심해 여기자(김수현)는 단 한명으로 이틀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을 뿐이다. MBC의 경우는 3명, KBS1은 2명의 여기자가 취재에 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비 불균형은 뉴스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자에 대한 편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예이다. 남앵커가 중요하고 무거운 뉴스를 진행하고 여앵커는 보조자적 역할로 가벼운 뉴스를 진행하는 이분법적 구도는 타 뉴스시간에서 여자 앵커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는 경우를 볼 때 논리에 맞지 않는다.

취재기자의 경우도 남자에 비해 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은 뉴스에 대한 고정관념의 반영으로 보인다. 즉, 뉴스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하는데 여자는 논리적 사고가 남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편견과 뉴스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도에 있어서 남자기자의 취재를 더 신뢰한다고 여기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자의 역량은 개개인의 역량의 차이이지 남녀의 성차는 아니라고 본다. 요즘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난히 뉴스쪽에만 여기자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타

뉴스는 정확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뉴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다. 그러기에 사실을 보도하더라도 다른 매체와 달리 현장을 생생하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TV는 장면선택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6월 6일 KBS 1 '여성 약물중독 심각'에서 마약 흡입전 마약을 나누는 장면과 담



배로 말아 피우는 장면이 파다노 출되어 있다. SBS(5일) '식인 상어 잡혀'에서도 피로 물든 상어의 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보기에 끔찍했다.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국제뉴스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것도 지적된 사항이었다. 잡다한 이야기 거리를 줄이는 대신 국제뉴스를 고정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규 뉴스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스포츠 뉴스'시간이 있는데도 '2002년 월드컵'에 대한 뉴스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월드컵 유치에 전국민적 축제라고 할 수 있고 파생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크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민생 현안이 가려질 우려가 있다.

KBS1(7일) '양담배 수입 급증'에서 시민 인터뷰는 미리 준비하고 연출된 장면임이 너무 여실히 드러났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뉴스에서 만들어진 듯한 장면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앵커의 멘트가 틀린 경우도 있는데 SBS(5일)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진 것을 보도하면서 실질반영비율이 전국 평균 11.4%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1.64%로 종전의 내신 반영비율에 비해 1.26% 높아진 것이다(한겨레 신문).

맺는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송3사의



방송 3사의 정규 뉴스는 너무 많은 종류를 취급하고 있어 백화점식 나열에 급급하여 심층취재가 부족하다. 뉴스의 양을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시청자들이 국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 뉴스를 정규적으로 보도해 주면 좋겠다.

정규 뉴스는 너무 많은 종류를 취급하고 있어 백화점식 나열에 급급하여 심층취재가 부족하다. 뉴스의 양을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고 깊이있게 다루어야 한다.

보도에 있어서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여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시청자의 판단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항상 공정한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자 앵커는 권위있고 자신감 있게 기억에 남을만한 뉴스를 전달함으로써 적극적인 이미지로 진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여자 앵커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장식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마찬가지로 남기자에 비해 여기자는 수적으로나 취재하는 분야의 중요도로 보나 너무 취약하다. 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능력에 따라 적합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TV는 영상이라는 살아있는 화면으로 다른 매체에 비해 영향력이 막강하다. 그러므로 보여주는 화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오히려 범죄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화면은 자제해야 한다.

시청자들이 국제적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 뉴스를 정기적으로 보도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뉴스만큼 시청자를 떠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확히 심도 있게 알 수 있도록 뉴스를 선별해 주길 바란다.

정리: 이영주(본회 매스컴모니터)

매스컴에 비친 여성 / 2

방송 3사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



모니터대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은 맞대응 편성을 피해서 시간대, 시청자층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특정분야 편중, 도덕적 불감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인물들의 출연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오늘날 TV의 기능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연예, 오락의 비중이 타 프로그램에 비해 막강하여서 거기에 종사하는 연예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시청자들,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연예인의 행동, 말, 의상 등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대 청소년들의 우

상이 연예인들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에서도 경쟁적으로 그들의 정보만을 따로 모아서 연예인들의 세세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매스컴 모니터회는 6월 26일 모임을 갖고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방영된 연예정보 프로그램을 모니터

한 결과를 토론했다. MBC '특종! 연예시티'(월, 오후 6:15~7:00), KBS2 '연예가 중계'(목, 오후 7:05~8:00), SBS '생방송 한밤의 TV 연예'(목, 오후 11:00~12:00)로 각 2회분 씩이다.

세 프로그램은 맞대응 편성을 피해서 시간대, 시청자층의 차별

KBS2 연예가 중계		MBC 특종! 연예시티		SBS 한밤의 TV 연예	
6/13	영화 '빅토르씨' 제작 발표회 스타초대 '윤종신'	6/17	한재석 '언릭스' 영화촬영 '빅토르씨' 제작발표회	6/13	'롤라' 가요계 복귀논란 영화 '립스틱 질게 바르고' 오수비 컵백
6/20	영화 '불새' 여배우 오디션 영화 '독바로 살아라' 크랭크인 중국 상해 세트장 '상해탄' 촬영현장 스타초대 '신승훈'	6/24	'어스' 법정 공방전 이정재 재대후 프로젝트 스타초대 '롤라'	6/20	한밤의 데이트, 영화 '지독한 사랑' 강수연, 김갑수 영화 '보스'에 출연한 조양은씨 집방문
	015B 해체선언 인터뷰		현장 인기체험 '데미스'		한밤의 데이트 '김민종'
					서극의 '상해탄' 촬영현장

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특정분야 편중, 도덕적 불감증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인물들의 출연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편중된 정보

방송3사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취급하는 화제와 초대손님의 대부분이 영화나 가수로 편중되어 있었다. 영화나 가수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특히 영화촬영 현장을 찾아가거나 초대해서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많은데 특정 영화를 홍보하는 인상이 짙다. 그리고 가수들의 출연도 앨범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예인의 범위는 코미디언, 개그맨, 탤런트 등 다양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들도 포함된다. 가령 한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제작사, 감독, 소품담당, 스텐트맨, 엑스트라, 카피라이터, 스크립터 등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보던 영화의 한 장면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무대앞에 보이는 연예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연예인의 모습도 궁금해 한다. 그러한 점에서 '연예가 중계'(6/13)의 기획물 '뮤직 비디오 감독'은 돋보였다.

영화, 비디오 소개 코너

'특종! 연예시티'의 '신작 영화 소개', '연예가 중계'의 '신 비디오피아', '시네마테크', '한밤의 TV 연예'의 '이번주 개봉 영화'라는 이름으로 영화와 비디오를 소개하는 코너들이 있다. '연예가 중계'의 '신 비디오피아'에서는 '다양한 미래세계'(6/13), '영화속의 다리'(6/20)로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비디오를 소개하는데 재미있는 구성이다.

그러나 다른 코너들은 모두 줄

거리나 주인공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소개하는 영화나 비디오의 장단점을 알려준다거나 하는 폭넓은 정보는 주지 못하고 있다. 전문적인 평을 곁들여 시청자가 영화나 비디오를 선택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영화나 비디오 소개시 제공하는 화면이 한결같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장면만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 불감증 조장

'특종! 연예시티'(6/24)의 '스타초대'에서는 '물라'가 직접 출연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한밤의 TV 연예'(6/13)에서는 '물라'가 요계 복귀 찬반'에서 기자회견, 거리 인터뷰 등으로 긴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였다. '물라'는 불과 몇개월 전에 표절 시비로 도망치다시피 미국으로 갔던 그룹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의환향이라도 한 것처럼 '가요계 복귀 찬반'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홍보를 하고 그들의 복귀를 부추기고 있다. 재능있는 젊은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마땅하나 충분히 반성할 시간을 갖고난 후 자신들의 잘못을 확실하 누우치고 팬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물라의 복귀는 단순히 가요계 한 그룹의 어물쩍한 복귀의 문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 불

감증의 반영이다. 이러한 졸속한 행동들을 용인하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청소년에게 미칠 도덕적 파장을 생각할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화 '보스'에 출연한 조양은씨의 경우는 '특종! 연예시티'(6/24)에 '보스'가 소개되었고 '한밤의 TV 연예'(6/20)에 '조양은씨 집방문' 코너에 출연하였다. 조양은씨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속죄하는 마음에서 영화에 출연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아서는 안되겠다는 교훈을 얻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정도 이상으로 미화되어 있는 그의 인생을 더욱 미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표절을 작곡, 작사자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물라'나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죄값을 치루었다는 '조양은' 씨나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타 방송사에 지지 않으려고 울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출연시키는 방송사의 자세는 시정되어야 한다.

시청층의 차별화

'특종! 연예시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예가 중계'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에, '한밤의 TV 연예'는 성인층을 겨냥한 시간에 편성되어 시청층을 차

영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경우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다루지 말고 한편의 영화가 완성되기까지 제작사, 감독, 소품담당, 스텐트맨, 엑스트라, 카피라이터, 스크립터 등이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면 시청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보던 영화의 한장면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별화한 점이 긍정적이다. 또한 유사 프로그램들을 맞대응하여 시청률 경쟁으로 치닫는 타 프로그램에 비해 서로 시간을 피해 편성한 점도 시청자에 대한 배려로 본다. 특히 MBC의 '특종! 연예시티'는 청소년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신중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타

리포터는 리포터로서의 자질이 나 능력이 필요하다. '특종! 연예시티'의 설수진의 경우는 산만한 진행은 말할 것도 없고 목소리에도 문제가 있다. '미스 코리아 선'이라는 타이틀 보다는 리포터로서 자질을 갖춘 사람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훈련기간을 거친 후 출연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에 '한밤의 TV 연예'는 외국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적재적소에 알맞는 리포터를 기용해 이야기를 매끄럽게 끌어갔다.

진행자의 멘트가 화면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아무 생각없이 말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 '연예가 중계'(6/20)에서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 소개에서 김병찬의 '충격적 장면'이라는 멘트는 내용과 맞지 않았다. 비디오피아 박세민의 경우 '영화속의 다리'를 이야기하며 '숙녀분의 다리' 운운한 것은 불필요한 농담이었다.



‘한밤의 TV 연예’에서 ‘신인 그룹의 춤’ 코너에서 춤이 너무 야해서 바꾸었다는 김부용의 춤을 굳이 다시 추게 해서 보여주는 의도가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한 이소라의 ‘내가 보기엔 야한 것 같지 않은데...’하는 멘트는 무척 입하다.

‘연예가 중계’에서 화면마다 내용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자막 처리를 해주는 배려는 좋았다.

또 뉴스나 정보가 될 수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특종! 연예시티’(6/17)에서 안재욱이 이태리에서 찍는 ‘브렌파노’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특정 상표의 광고이다. ‘한밤의 TV 연예’(6/13)에서 야해서 바꾼 춤은 정보로서 가치가 거의 없고 ‘좌충우돌 전유성의 유럽여행’(6/20)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함인지 알 수 없었다. ‘연예가 중계’(6/20)에서는 ‘박중훈의 빅쇼 출연’을 필요 이상으로 길게 보여주었는데 방송에서 따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 프로그램에서까지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결국 지나친 자사 프로그램 홍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TV에서 혀를 내미는 모습, 노래 소개(유쾌한씨의 껌씹는 방법)가 이유라고는 하지만 심하게 껌씹는 모습, 선정적인 옷차림, 인터뷰시 선글라스를 쓰고 하는 것 등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
뉴스 정보 영화,
비디오 등 잡다하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다양한 모습의 연예인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또한 시청
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

맺는말

새 프로그램은 연예가의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연예인을 우상화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정확한 연예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의 신변잡거나 말초적인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깊이있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원한다.

뉴스, 정보, 영화, 비디오 등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다양한 모습의 연예인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또한 시청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쓸모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뮤직 비디오 감독’과 같은 참신하고 바람직한 시도들을 기대한다.

정리 : 윤명아(본화 데스크모니터)

여성관련통계

남녀 직업훈련원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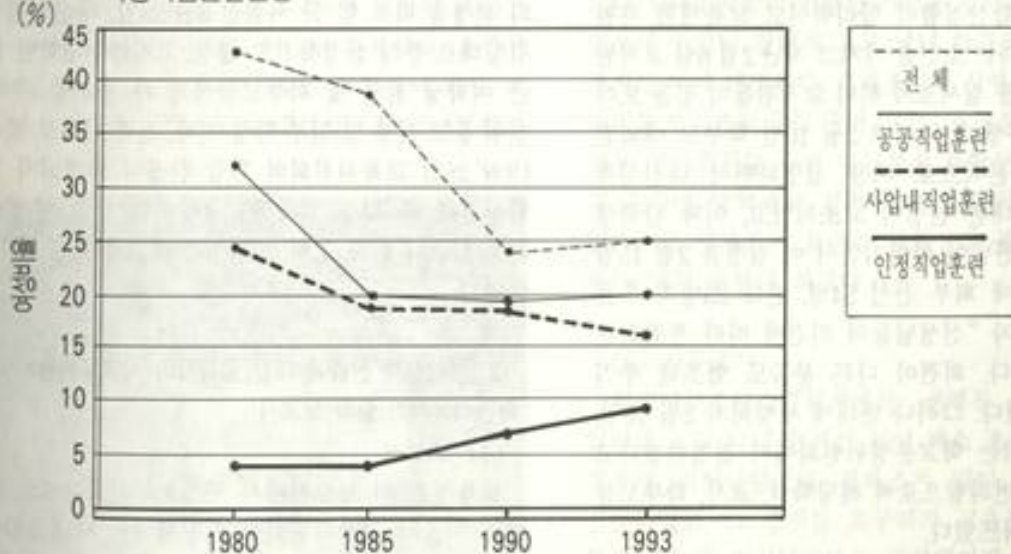
여자직업훈련원생 수는 전체 훈련원생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훈련 주체별로 보면 여자훈련원생은 주로 사내(66.9%)에서 훈련받고 있고 남자에 비해 인정기관에 의한 훈련비율이(25.3%) 높으며, 공공직업훈련 기관의 훈련비율은 1980년 이래 계속 증가해 왔음에도 8.1% 수준으로 남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 이에 여성들의 공공직업훈련 기회를 확대시켜 기술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망된다 하겠다. (출처: 노동부 직업훈련국)

성별 직업훈련원생 분포

(단위: 명, %)

년도	계			공공직업훈련			사업내직업훈련			인정직업훈련		
	여자	남자	여자비율 (%)	여자	남자	여자비율 (%)	여자	남자	여자비율 (%)	여자	남자	여자비율 (%)
1980	25594	78886	24.5	1246	29885	4.0	21258	44955	32.1	3090	4046	43.3
1985	9057	46328	19.5	924	21659	4.1	4388	19488	18.4	3745	5181	38.9
1990	10526	57176	18.4	1668	22773	6.8	4665	21025	18.2	4193	13378	23.9
1992	29791	149073	20.0	2415	23716	9.2	19827	102603	16.2	7549	22727	24.9

여성직업훈련현황



구정고 내신성적 산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지난 2월 서울 입구정동 소재의 구정고등학교에서는 이과반 여학생들이 남녀분리 내신성적 산정과 관련, 이의 부당성에 합의하여 각 계에 건의문을 송부한 바 있다. 구정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우수생이 몰려있는 이과반 여학생들은 남녀분리 내신제도를 적용받아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말 구정고등학교의 내신성적 산출과 관련된 학사행정 처리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개포, 금양, 새중, 오금, 청담 5개 남녀공학고교의 내신성적 남녀통합 산출에 관한 심사는 지난 7월 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1. 조사결과

1. 구정고등학교 내신성적 산출 결정과정

구정고등학교 권재중 교장은 내신성적 산출을 분리하여 통합산정함이 합리적이고 교육개혁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지난 2월 6일 교직원 회의에서 이를 실시코자 하니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2월 10일 학부모 대의원 대회에서 이론적으로 이를 설명하면서 내신성적 통합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과 남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 결정을 2월 15일 교직원 회의에 회부 찬성 54명, 반대 23명의 투표 결과가 나오자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통합하는 것으로 하겠다. 의견이 다른 분들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에 부딪히자 2월 16일, 4월에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도와달라고 번의함으로써 해당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는 2월 18일 3학년 이과반 여학생 35명이

전원 집단 자퇴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3월 14일의 국공립 교장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3월 16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코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앞 둔 시점인 3월 23일, 내신성적을 원상태로 분리 산정하기로 결정, 고지하여 3학년 15반 여학생 전원 및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 전원 등교 거부 및 일부 학생 전과, 전학 사태로 발전(3월 25일 교육위원회의 통합 산정이 의결되자 통합산정해 줄 것을 기대하고 4월 4일 등교, 수업을 하고 있으나 전과, 전학, 퇴학생을 빼고 현재원 25명) 하였다.

2. 학업성적 산출에 대한 교육청의 시교육위원회의 '의견서' 처리 결과 보고서

(1) 보고서

교육청은 이 보고서에서 구정고등학교장으로 하여금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의견서에서 남녀통합산출의 타당함을 들어 이와 같이 시행하여 학업성적

산출 및 등교 거부학생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토록 한 결과를 ① 구정고등학교 학업성적 처리는 현재 3학년의 경우 종전과 같이 남녀분리하여 산정하고, ② 교육청 검토의견은 학업성적 산출방법은 학교장의 재량권(교육부예규 242호)이라고 못받고, 따라서 구정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위배하고 있고 교육청은 구정고등학교의 조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2) 예규 242호

교육청이 관련 공문마다 내세우는 '교육부예규 242호'는 ① 일반계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계열별 석차배분율(통합산출)'을 산출한다.가 주요사항이며 ② 남녀공학인 경우 학교장 재량에 의해 '남녀분리 산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교장재량으로 통합산정해도 예규 242호의 위배가 아니며 구정고등학교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은 마땅히 교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교장 재량이라 하여 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만을 취하고 있다.

(3) 교육청감사

교육청은 구정고 감사보고서에서 교장이 내신산정 산출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반복하여 혼란이 야기됐음에도 토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이를 잘못 인지하고 내신성적을 남녀통합하

기로 결정한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의 방침을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고 혼란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4) 교장회의 결정

구정고 권재중 교장은 자신이 따르겠다고 한 교장단 모임은 서로 의견 교환만 했을 뿐 아무런 결의를 한 바 없으며, 친목모임이기 때문에 결의를 하는 입장이 못됨(최태상 협의회장 증언)에도 불구하고, 권재중 교장은 ① 현 2, 3학년은 현행대로 내신 성적을 분리산정한다. ② 남녀공학 인문계 고등학교는 위와 같은 결정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라는 결의를 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교육청에 보고하였고 교육청은 아무런 검증없이 교육위원회에 허위문서를 학업성적 산출에 대한 시교위 의견서 처리결과 보고에 첨부하여 내신성적 분리 산정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5) 경과조치

교육청이나 권재중 교장 등이 내신성적 통합산정 불가의 이유로 경과조치가 없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경과조치없이 시행한 시책은 얼마든지 있으며, 연초에 있었던 일반계 고교 남녀 합격선 차이 해소 조치도 이에 해당된다. 경과조치란 시행전 일정기간 대비를 목적으로 주는 준비기간인데 구정고등학교의 경우 경과조치를 주어 내신성적 통합산정을 한 들, 그 기간에 남학생의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과조치 요구는 통합산정 불가의 별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겠다.

(6) 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에서 권영창 중등국장은 일반계 고교 남녀 합격선 차이 해소 조치는 특별히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경과조치 없이 시행했다고 진술하였고, 그 증거를 요구하자 교육부 행정실을 통해 구두로 지시받았다고 말하였다가 신문기사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허위진술을 하였다.

(7) 내신성적통합산출 요구는 종합생활기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발생하였으므로 종합생활기록부가 나오기전 분리 산정을 알고 계열을 택했으므로 통합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8) 비교분석표

내신성적 비교산정표를 참고해 보더라도 구정고등학교의 경우 내신성적을 통합하더라도 많은 수의 남학생들에게 미치는 손해는 미미하며, 분리산정했을 때 소수인 여학생에게 미치는 손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9) 내신성적 비교분석표 소각폐기

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제59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남녀 통합산출한 내신 비교분석표를 자료로 요구하였으나, 제출치 않고 소위원회가 통합산정을 의결하는 3월 25일 권재중 교장은 정재현 행정주사를 시켜 학교 소각장에서 본인 입회하에 원본 모두 40여분에 걸쳐 소각,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였고 대성전산원에서 출력한 원본도 이숙영 교감을 시켜 대성전산원에 폐기토록 지시하였다.

(10) 이해의 대립

교육청과 권재중 교장은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양보가 통합산정 시행의 선결조건이라 하나, 교육정책의 선택 시행은 흥정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옳고 그름에 의해 결정, 시행되어야 하므로 타당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해야 할 의무가 교육행정당국과 학교 당국에 있다고 본다.



II.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구정고등학교는 내신성적을 통합산정하고 교육청은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2. 구정고등학교는 그간 실추된 학교의 위상을 되찾고 학생, 학부모, 교사, 교장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교육청은 책임을 일선학교에 미루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4. 교육청은 교육정책의 심의,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의 모든 합법적인 결정을 존중,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5. 6개월에 걸친 구정고등학교 사태 및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책임행정 구현의 차원에서 구정고등학교 권재중 교장과 권영찬 중등국장을 엄중문책 인사조치 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환경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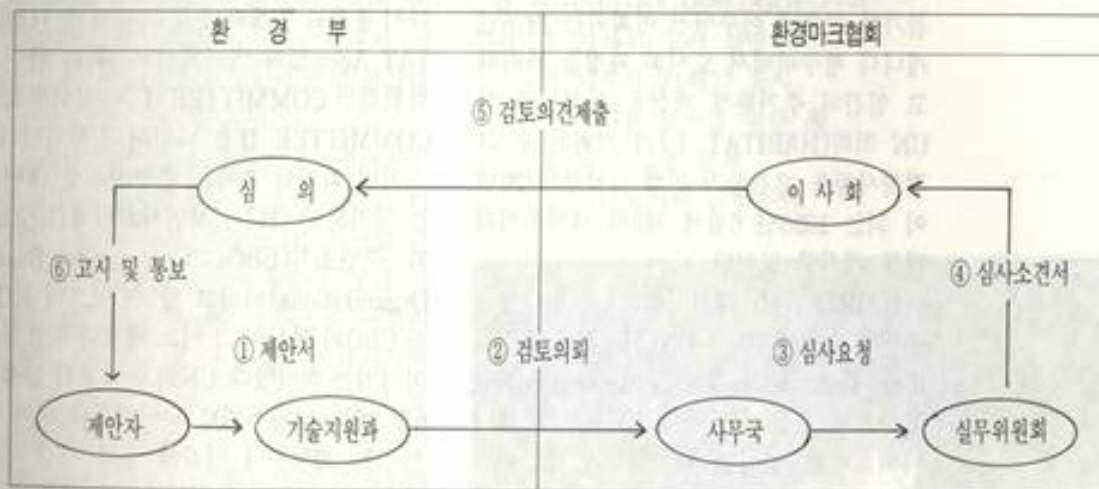


환경마크 제도

환경마크제도는 동일한 용도를 갖는 상품중에서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도이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이외에 싱가포르,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2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환경부에서 관련법규제정, 대상제품 선정 등을 관장하고 환경마크협회에서 환경마크사용 인증을 위한 신청서 접수, 심사 등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마크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제조·유통과정, 사용과정 또는 사용후 폐기과정에서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96년 6월 현재 재생종이를 포함한 종이 및 그 제품류, 유아용 천기저귀, 물절약형 수도꼭지, 천 장바구니, 저유황 등유, 빈켄 회수기 등 36개군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은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접수처: 환경부 기술지원과 (전화: 504-9242)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환경마크 사용인증을 위한 부여기준에 대한 설명서



세계주거회의 참가보고

오혜란 (본회 사무차장겸 기획부장)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2차 세계주거회의는 1976년 캐나다에서 도시화과정의 관리와 인간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 회의 개최 후 그 결정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년이 되는 1996년 6월에 개최된 것이다.

UN이 주최하는 20세기의 마지막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제2차 세계주거회의(UN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 HABITAT II)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렸다. 당초의 예상인원이었던 2~3만명에는 훨씬 못미치는 5~6천명 정도가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회의는 1976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도시화 과정을 관리하고 인간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UN 회의(HABITAT I)가 개최된 후 그 결정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그로부터 20년이 되는 1996년 6월에 제2차 세계주거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HABITAT I 개최 이후 그 결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UN은 UNCHS(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Settlement, UN인간주거센터)를 설립하고 그 본부를 케냐 나이로비에 설치한 바 있으며, 2년전인 1994년 4월부터 HABITAT II 개최준비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서도 '95년 10월 '세계주거회의를 위한 한국민간위원회'를 창립하고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시발전 전략과 '주거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70여명의 민간위 대표단이 회의에 참가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위 대표단에는 18단체에서 참가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이연숙 회장과 본인이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는 크게 나누어 볼 때 본회의와 NGO 포럼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회의는 다시 총회와 두개의 주요 위원회 즉, HABITAT Agenda와 범세계실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인 COMMITTEE I, 공청위원회인 COMMITTEE II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중앙정부로 대변되는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NGOs)와 주민조직(CBOs: Community Based Organizations)이라고 할 수 있으며 NGO와 CBO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회의였다. UN의 공식회의 일정은 6월 3일~14일까지로 되어있으나 이에 앞서 5월 30일부터 시작해 총회 기간 내내 계속 진행되었던 NGO 포럼은 하루 평균 50개 이상의 포럼이 각국의 NGO에 의해 조직되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NGO 포럼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적 환경에 관한 회의 이후 NGO와 CBO가 UN의 여러

주요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리우환경회의에서부터 비엔나, 카이로, 코펜하겐, 북경여성대회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해 북경에서 열렸던 세계여성대회 NGO 포럼에 비해 시설이나 설비측면은 월등히 나았지만 하루평균 500여개씩 진행되었던 북경대회에 비해 10분의 1정도의 규모로 그 관심도가 북경여성대회에 쏟아졌던 것에 비해 훨씬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루어진 주제는 도시화, 인간거주, 환경, 여성, 청소년, 평화, 과학기술, 건강, 노인문제, 사회발전, 가치, 인권, 장애인, 어린이 등 포괄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거회의라기 보다는 오히려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생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하겠다. 이는 HABITAT II 사무총장인 Wally N. Dow와 UN 사무총장인 Boutros Boutros-Ghali 등 주요 참석인사들의 연설이나 인터뷰 곳곳에서 강조되는 내용이었으며, 어느 특정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가 지향해 나가야 할 일반적 상황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나 그중에서도 환경문제와 여성문제가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과 관련한 포럼이 눈에 띄게 많았다. 포럼 개최식의 대회사들 통해서도 여성의 역할이 각별히 강조되는 등 곳곳에서 미래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 지난해 북경여성대회의 여세가 이스탄불로까지 연결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인간 주거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빈민의 생활조건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표로 모든 사

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는 세계속에서의 지속가능한 인간주거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행동강령을 채택한 이번 회의의 주요행사를 일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30 NGO 포럼 시작

NGO 포럼 소개-UN과 NGO와의 관계, NGO 포럼과 HABITAT II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소개

6. 1 NGO 포럼 개막식

주최국인 터키의 문화공연에 이어 NGO 포럼 준비위원장인 Han Van Putten의 개회인사, HABITAT II 사무총장인 Wally N'Dow의 대회사, 터키 철학자인 Oruc Aruoba의 주제강연

6. 3 UN 총회 개막식

Boutros Boutros-Ghali UN 사무총장의 개막연설, COMMITTEE I, COMMITTEE II 진행

6. 4 HABITAT DIALOGUE 시작

주제: 1. 21세기 도시 전망
2. 재정과 21세기 도시
3. 목마른 도시를 위한 물
4. 도시 고용 문제
5. 미래도시의 교통수단



△말하고 있는 이연숙 회장



▲ 한국이 주도했던 '아시아인의 밤' 행사 장면

6. 미래의 토지와 농촌 및 도시 개채
7. 21세기의 에너지
8. 21세기의 시민정신과 민주주의
9. 정보사회속의 도시, 통신, 미디어
10. 21세기의 바람직한 도시 건설

이밖에 대회 기간중 UNCHS와 몇몇 UN기구 주최로 전시회가 계속되었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이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NGO 대표단을 중심으로 살펴본 주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5. 31 아시아인의 밤

한국, 캄보디아, 인도,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피지가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참가자의 밤 행사가 이루어짐. 한국의 사물놀이 공연을 필두로 각국 대표들의 문화 및 주거 상황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한국 문예팀을 중심으로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강강수월래로 마무리 정리.

6. 1 한국 NGO 위원회 주최 포럼

'지방의회와 NGO의 역할-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도시'

6. 4 주거권 확보를 위한 아시아 지역 연대 지위

6. 6 주거권 확보를 위한 갈라타 다리에서의 세계 연대 집회 및 시위

본회 이연숙 회장과 본인은 한국 NGO의 활동에 함께 참가하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 각종 NGO 포럼 중 여성과 관련된 각종 포럼에 참가(이연숙 회장은 '여성공동체 만들기', 'NGO/BUSINESS 대화모임', '사회개발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 등에 참가하여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한국 여성의 지도력을 유감 없이 보여주었다.)

- 세계주거회의 총회, COMMITTEE I, COMMITTEE II에 NGO 자격으로 참가

- 매일 저녁 개최되는 Daily Briefing에 참가

- 세계여성단체협의회(ICW)와 국제 ZONTA CLUB 등 세계여성단체와의 교류로 세계적 연대망 형성

회의에 참가하면서도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이나마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대규모 행사였던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인간의 거주문제에 관한 NGO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행사였다. 또한 지난해 개최된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의 국제 동향 파악 및 세계 여성계 흐름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짧지 않은 회의참석 일정이 오히려 아쉽게 여겨질 정도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손쉬운 요리

'약 식'

만든사람 : 이연숙 (본회 회장)

예일 예식장을 경영하는 친구 김도숙 사장에게 배워서 가끔 집에서 해먹기도 하고 간단한 선물로 외국인 친구를 방문할 때 들고 가 환영을 받는다.



재료 :

- 참쌀-1kg (물에 10시간 담가 두면 2kg 가까이 된다)
- 건 대추-30개 정도 (물에 담가 불으면 씨를 뺀다)
- 황유-50g (생유보다 황유가 어울린다/물에 담가 잘 불린다)
- 물-유리잔(200CC)으로 2와 1/2컵
- 흑설탕-1/2컵
- 황설탕 혹은 백설탕-1과 1/2컵
- 참기름-3큰술(table spoon)
- 진간장-6~7큰술
- 꿀-1 작은 술(tea spoon)
- 가루 커피(instant coffee)-1 작은 술
- 계피 가루-1 작은 술
- 잣-조금

만드는 순서 :

1. 물에 흑설탕, 황설탕, 참기름, 진간장, 꿀, 가루 커피, 계피 가루를 섞어 잘 저은 후 그 물을 압력 밥솥에 담고 거기에 씻어 놓은 참쌀, 대추, 밥 불린 것을 섞어 놓고 뚜껑을 덮은 후 중간보다 약간 센 불로 끓인다.
2. 압력 밥솥 뚜껑 위의 방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2분 40초만에 불을 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타기 쉽다.
3. 10분 지나면 김을 빼고 뚜껑을 열어 주걱으로 잘 섞은 후 잣을 뿌려 섞고 도로 뚜껑을 덮어 잠근다.
4. 10분후 김이 빠졌는지 확인하고 뚜껑을 연다. 네모나 둥근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서 식힌 후 상에 낸다.

우리나라 여성, 성희롱 경험을 36%

우리나라 여성 10명중 3명꼴로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피해는 20대 여성(42.7%)과 서울에 사는 여성(46.5%)에서 특히 많았다.

최근 정부제2장관실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련된 의식 및 태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응답자(395명) 중 성폭력 및 성희롱피해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35.9%였다.

포르노잡지·영화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전체의 55.3%로 「포르노물이 성범죄를 부추긴다(56.4%)」는 부정적인 의견과 팽팽히 맞섰다. 매춘이 용납될 수 있느냐는 설문에는 전체의 37.3%가 「용납된다」고 응답. 특히 20대남성일수록 용납될 수 있다는 응답율이 높아 성에 충동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한편 남녀운전자중 과음상태로 운전해본 사람이 34%였고 음주운전비율은 여성운전자(9.3%)보다 남성운전자(43.6%)가 훨씬 높았다.

자살충동에 관해서는 전체의 47.5%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56.9%), 지역별로는 서울사람(59.3%) 일수록 자살충동비율이 높았다.

자살충동을 느낀 시기는 중고생시절(62.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44.2%), 30대(18.9%) 순이었다. 40대이후(11.1%)에 자살충동을 느낀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부부싸움, 평균 30분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커다란 빌미 3가지는 자녀 문제, 시부모문제, 늦은 귀가문제로 나타났다. 부부들의 접전시간은 평균 30분이 가장 많다.

최근 월간 「아버지와 가정」(아시아문화교류연구

소 간)이 수도권외의 30~40대 기혼남녀 171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부부싸움경험율은 96.9%였다. 횟수는 한달에 한번(39.8%)이 가장 많고 그다음 연1회(29%), 1주에 한번(7%) 순이었다. 싸우는 원인(중복응답)은 자녀교육 등 자녀문제(40.9%)가 1위, 시부모 또는 시댁문제(37.4%), 늦은 귀가(35.1%), 음주(28.7%), 돈문제(26.3%)가 뒤를 이었다. 5년 이내 부부들은 「시부모」, 「돈」문제로 자주 싸우고 5년 넘은 부부들은 「자녀」, 「시부모」문제로 충돌한다. 이 중 시부모문제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싸움시간은 30분 이내(58.8%)의 「속전속결파」가 가장 많았다. 1시간이상 장기전에 돌입하는 경우도 10.9%로 적잖았다.

부부싸움의 정도는 끝까지 말로만 싸우는 온건파(73.6%)가 가장 많았으나 심한 욕을 하거나(13.2%), 욕하면서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4.2%) 과격파도 있었다. 여기에 상대방을 때리는 경우(1.8%)도 있었다.

부부싸움후에는 하루정도 냉각기를 갖거나(39.4%) 화해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16.9%) 후유증이 나타났다. 즉시 화해하는(38.2%) 부부도 상당수 있었다.

먼저 사과하는 쪽은 남편(45.1%)이 아내(17.7%)보다 많고 29.3%는 명백히 잘못을 저지른 쪽이 사과하고 있다.

화해때 주로 쓰는 말로는 「미안해」(32.7%), 「사랑스러워」(8.8%), 「잘못했어」(7%)순이었다. 부부싸움을 하지않는 극소수의 응답자들에게 비결을 물은 결과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믿어준다는 응답이 공통적이었다.

정부제2장관실, 여성주간 행사

「7월 1일부터 1주간은 여성문제를 이야기합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7월1일)을 기념하는 여성

주간이 생겼다.

정부제2장관실은 올해부터 7월1일부터 7일까지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삼고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 기간중 특별강연을 포함한 전국대회를 비롯, 세미나, 유공자포상 등이 펼쳐졌다.

정부제2장관실은 「여성주간과 여성발전기본법을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KBS 열린음악회도 유치했다. 7월말이나 8월초 방송되는 열린음악회에서 직접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홍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여성문제에 관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을 기념, 여성의 지위향상을 꾀하고 이 사회에 남녀평등의식이 자리잡기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지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제1회 여성주간기념 전국대회는 7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성계 인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성발전에 힘쓴 유공자 및 단체에게 국민훈장 등이 주어졌다.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이혼 사유분석

우리나라 아내들이 이혼을 원하는 이유로는 남편의 구타와 외도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40대 남편들은 아내의 무단가출과 외도문제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례가 으뜸으로 드러났다.

소수이지만 아내의 구타로 이혼하겠다는 남성들도 있었다. 「매맞는 남편」은 50대 남성에서 특히 많았다.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 95년 1년간 서울상담소에 접수된 이혼상담 4,006건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혼상담건수는 면접상담(8,469건)의 절반(47.3%)을 차지했다. 내담자 10명중 8명(86.5%)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인 이혼고려사유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의 무책임, 언어폭력 등 다양한 사유를 포함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사유)」가 1위(여성의 44.3%, 남성의 29.8%)였다.

6호사유 다음 단일사유로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구타(28.1%), 부정행위(17.3%)가 20대~40대 여성을 통틀어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했다.

아내를 때리는 남편의 폭력성이 여전히 우리나라 가정용 파탄에 빠뜨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남성들은 6호사유 다음으로 아내의 무단가출(27.9%), 부정행위(22.4%)를 꼽았다.

6호사유도 내용이 만만치않다. 여성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받는 신체적 위협(20.8%), 남편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생활태도(15.8%), 주벽과 만성알콜중독(10.9%), 상습도박(7.4%) 등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등장했다. 비율은 낮지만 혼수시비, 의처증, 지참금 시비, 성격 갈등 문제도 있었다. 남성의 「6호사유」에는 성격차이(15.5%), 정신질환 등 질병(13.7%), 아내가 진 빚(11.3%)이 포함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대~40대 남성들이 아내의 가출로 고민하는 사례가 적잖은 현상과 관련, 부부갈등의 주원인인 남편의 폭력행사때문에 아내의 가출이 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부부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4시간 상담체계 갖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월부터 24시간 상담체계를 갖추고 성폭력상담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성폭력피해를 입은 지 48시간내에 상담을 청해오는 위기상담에 한 해 24시간 상담을 받아오던

것을 일반 상담에까지 적용한 것이다.

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상담을 위해 남녀야간상담원 71명을 훈련시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남성피해자일 경우 남성상담원이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야간상담전화는 529-4271)

정무제2장관실, 여성노인과 삶의 질에 관한 세미나 열어

정무제2장관실이 제1회 여성주간(7월 1일~7일)을 기념해 여성노인과 삶의 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7월 5일 오후 2시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공동의 장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노인문제에 대한 발제에서 "노인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그동안 여성노인문제는 전체 노인문제에 묻혀 등한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65세이상 인구는 '80년 6.1%에서 '90년 7.7%, '95년엔 9%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중 여성노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특히 60세이상의 노인이 혼자사는 노인단독가구중 여성노인단독가구가 87%를 차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홀로사는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어 "노인복지의 기본이 소득보장이 라면 노인들에게도 일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사실 '94년 현재 60세이상의 노인의 취업실태는 남성노인은 절반이상, 여성노인은 1/4이상이 고용돼있다. 그런데 실제 임금에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훨씬 불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협, 노예문제실무위원회 결의환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유엔인권소위원회 위원중 5명의 위원이 모여 결성한 현대형노예문제 실무위원회가 최근 결의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정대협에 따르면 현대형노예문제실무위원회는 최근 일본정부가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노예문제실무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펼친 입법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결의문은 지난해 노예문제실무위원회가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중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문제를 위해 행정적인 심사회를 신속히 설치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지난해 제안중 "국민기금을 포함한 일본정부가 정책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익한 절차의 하나로 보인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정대협은 이같은 결의가 일본정부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한다. 더욱이 일본정부가 7월부터 국민기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차에 터져나온 결의에서 일본정부로서는 궁지에 몰린 셈이다.

정대협은 일본정부가 이번 노예문제실무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의 전화,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결정 환영

한국여성의전화는 자신의 딸을 상습적으로 구타하던 딸의 동거남을 살해한 이상희 할머니사건이 집행유예결정으로 마무리되자 "이상희 할머니가 조속하게 석방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여성의전화는 그러나 "재판부가 이상희 할머니의 살인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한달여동안 지속된 폭력에 대해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전화는 "그동안 자신을 구타하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사건을 다루면서 오랜 세월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한순간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다"며 앞으로 가정폭력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인식을 변화시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국민훈장 석류장 거부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정무제2장관실 주최 제1회 여성주간 기념 전국대회(7월 3일)에서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받게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발표했다.

이효재 공동대표는 김장숙 정무제2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국민훈장 포상대상자중에는 전두환씨를 「위대한 지도자」라며 5공의 대통령으로 추대한 5공세력의 대표적 여성인물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고 수상거부이유를 밝혔다.

이효재 공동대표는 "이는 현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기본입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고귀한 국민훈장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는 무원칙한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선정한 국민훈장·포장 수상자들은 가족법 개정과 한국여성개발원 설립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김정례 한국여성정치연맹총재 등 모두 14명이다.

이효재 공동대표는 여성학이론을 정립하고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협의회 등 여성단

체의 추천을 받아 국민훈장 포상자로 선정됐다.

모범 여성경제인상 선정

안윤정 (주)사라 대표이사 등 10명의 여성기업인이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가 제정한 제1회 「모범 여성경제인상」에 선정됐다.

여성경제인상은 올해 처음 생긴 제1회 여성경제인의 날(7월 6일)을 기념해 만들어진 것이다. 시상식은 7월 6일 낮 12시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여성경제인연합회는 어려움을 딛으며 기업을 일구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을 격려하기위해 이 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통산산업부장관상 ▲ 광치섬 (주)한남상호신 용금고 이사장 ▲ 김현숙 경신공업(주)대표이사

◇ 정무제2장관상 ▲ 안윤정(주)사라 대표이사 ▲ 이철우 마담포라 대표이사

◇ 중소기업청장상 ▲ 채계숙 우성전산기업(주) 대표이사 ▲ 이영순 (주)왕중사 대표이사 ▲ 조순조 부일머트리얼공업(주) 대표이사

◇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상 ▲ 김영일 (주)영인어패럴 대표이사 ▲ 김종월 (주)베띠앙뜨 이사 ▲ 이영숙 (주)코모도호텔 대표이사

여성문화예술기획, 사단법인으로 발돋움

여성문화예술기획이 사단법인으로 새로이 출발한다. 음악·연극 등 문화를 매개로 여성운동을 펼쳐온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지난 6월 17일 서울 동숭동 크리스찬아카데미 교육관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구경 (경향신문 기자)

정보통신부장관 초청 정책간담회



본회는 지난 6월 28일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이석재 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여성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원단체장 및 여성계 인사, 관련 단체장등 100여명의 여성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가 최고의 힘을 갖게 될 것이며 정보화 혁명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많은 변화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보화 산업에 관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에 누가 더 많이 진출하느냐에 앞으로 국가의 성패가 결정되고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반 여건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대로 여성만이 갖고 있는 창조적 지혜와 능력, 섬세한 특성 등이 잘 활용되어 소프트웨어 산업과 콘텐츠 산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요망된다고 보고, 정보화 시대는 잘못하면 개인주의화되기 쉽기때문에 서로 단합, 협력하고 이해, 포용하는 자세를 여성들이 키워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한국통신의 여성교환원 중 건경완장애를 보이는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예방 및 이들이 요양후 복직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문제, 우체국의 대민서비스 개선문제와 우편업무의 민간이양문제,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정보화와 연계된 전국민대상의 교육프로그램 마련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건경완장애의 예방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보겠고 복직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챙겨보겠다.", "대민서비스에 대해 나름대로 여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친절환 직원에 대해 해마다 표창하고 있다.", "우편업

무를 민영화할 경우 농촌, 벽지, 도서지방 등 수지가 맞지 않는 곳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편을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편업무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은 아주 낮은데 앞으로 여성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킬 생각이며 정보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언론사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들여다보는 것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 것 같고, 농촌에는 정보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주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답하였다.

취업여성 공개강좌 실시

본회는 지난 6월 10일~20일 중 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본회 2층 회의실에서 취업여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취업여성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기업과 취업여성의 의식의 차이를 줄여 나가고 경쟁력 갖춘 여성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지난해 입문 강좌에 이어 "일하는 여성, 무엇이 필요한가"란 주제로 실시한 이번 강좌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훈련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 당당한 직장인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첫날인 6월 10일에는 세련된 직장여성만들기-대인관계개선 프로그램-(홍기문 기업발전연구원 소장), 13일은 직장여성의 정보사냥-직장여성과 정보관리-(이명신 천리안 여성학 동호회 운영자), 17일은 '일하는 여성, 무엇이 필요한가'란 주제로 본회 이연숙 회장과 동방기획 유종숙 여성생활문화팀장, 신한은행 황영숙 노조부위원장 등이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20일은 여성고용관계법(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에 대한 강의



대한간호협회

신한국당, 간협 회장단초청 간담회



신한국당 여성의원들은 지난 6월 17일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회장과 정연장 제1부회장, 실무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여성문제와 간협의 현안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신한국당 측에서는 권영자 여성위원장과 임진출 의원등 4명의 여성국회의원, 여성국장, 보건복지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권영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만 간호사들이 간협을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격려하고 다양한 여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언제나 당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희 회장은 "건강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건강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97년 교과과정 개편시 보건교과가 독립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남녀 차별의식등 관습에 막혀 고위직으로 승진하는데 장애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난해 개정된 정신보건법과 교육법 시행규칙 제

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자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 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이 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책이 마련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보육시설이 확충되고 육아휴직제가 현실화돼야 하며, 여군에서도 조속한 시일내 장성이 배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여성의원들은 또한 간호교육기관 4년제 일원화, 보건복지부내 간호사업과 설치, 간호사 국가시험원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간호사 유휴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한 몫을 해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여성승공연합

전국 순회교육 실시

국제여성승공연합 문수자 회장은 서울시 25개구에서 5월~7월까지 3개월동안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 교육의 주제는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



동정란

연합통신 외신국 이영님 기자, 미국 특파원으로 나가

지난 1993년 9월부터 1996년 6월까지 본지에 해외여성통신을 기고한 연합통신 외신국 이영님 기자는 7월 1일자로 연합통신의 미국 특파원으로 나가 근무하게 되었다.

지원체계 구축, 근로소득세에서 기혼 취업여성의 필요 경비인정, 부시장, 부군수 및 여성장군 임명 등을 건의하였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이흥구 대표위원을 면담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본회 회원단체 36개단체로 늘어

본회의 회원단체가 36개 단체로 늘었다. 지난 7월 9일 본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총재: 신영순)이 본회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은 지난 95년 12월 창립되었으며 4,830여명의 회원이 있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을 포함 15개 시도에 지부를 갖고 있다.

가 있었다.

신한국당, 본회 임원및 상임위원장 초청 간담회 가져

지난 6월 24일 신한국당은 본회 임원 및 상임위원장등 12명을 초청해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신한국당 여성위원장인 권영자 의원을 비롯한 임진출, 김영선 의원, 전성철 대표위원 특보, 이경숙 여성국장 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당과 여성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공학 고교에서의 내신 성별 분리제도를 금년부터 통합 실시할 것과 교육 정책 결정 권에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취업 정보센터 운영및 고학력 여성 취업 지원 체계 확충, 노인을 위한 각종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상과 한국여성의 정치현황에 대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조직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의 목적은 각 구를 순회교육함으로써 현지의 상황을 피부로 느끼며 여성들이 단합하여 사회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데 있다.

한국생활공예협회

이인수교수 초청세미나



한국생활공예협회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강사)들을 대상으로 이인수교수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오는 7월 15일~7월 16일 1박2일간 남북한 통일 및 민간교류를 대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일연수교육을 전역 국비로 90명을 선발, 국립통일연수원에서 연수교육을 받게 된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자녀들의 성교육' 실시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서빙고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성교육은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선생님들도 함께 청강하였다.

청소년성교육개발연구소 조항원 소장은 실제적인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현실속의 자녀들이 고민하는 성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모들이 이해할 사항과 해결방안,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번 교육은 적당한 참고자료나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녀들의 성교육에 유용한 강의였다는 의견을 나누고 마쳤다.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에서는 자녀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강의와 같이 학부모의 역할이 보다 절실한 현재의 사회환경에서 보다 실질적인 자녀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녀지도 프로그램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우 · 리 · 들 · 의 · 광 · 장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간소한 추석명절음식강습회 개최안내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에서는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간소한 추석명절지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도시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추석명절 음식강습, 간소한 추석차례상차림 전시, 주부송편빚기대회를 실시한다.

우리 명절의 참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마련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강습회에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란다.

- 다 음 -

1. 일시 : 1996년 9월 18일(수) 오후 2시
2. 장소 : 수협중앙회 2층 강당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3. 내용 : 간소한 추석명절음식강습회
 - ① 추석차례상차림 전시
 - ② 각 도 송편전시
 - ③ 주부 송편빚기대회
 - ④ 참석자에게 교재 무료배부

4. 문의처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02-833-1623~4)

출장조리사 파견 상담안내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부설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는 수료후 출장조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들을 연결해주는 출장조리사 파견 상담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집안의 각종 행사 및 손님초대시 음식준비에 고심하는 주부들의 일손을 도와줄 수 있는 출장조리사의 파견을 원하는 분들의 이용을 바란다.

출장조리사는 음식재료 구입부터 상차림, 뒷정리까지 도움을 주게되며 출장조리 수료료는 6만원으로 20명 기준이다. (상담안내 : 02-833-1623~4)

한국여학사협회

여학사 독서회, 문예진흥기금 6백만원 지원 받아

1991년 6월에 발족한 여학사 독서회는 현재까지 51호의 양서들을 할인(20~30%) 구입하여 매달 읽음으로써 독서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조성, 독서의 욕을 고취 파급시켜 왔다.

이에 보다 광범위한 독서의욕 전개운동으로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서울시민의 정서 함양, 지적수준의 고양이라는 목적하에 「문화시민을 생각하는 독서운동」이라는 주제의 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을 신청해서 지난 5월 13일, 총사업소요액 약 1천8백만원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6백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여학사 독서회 확대 실시'로 본 여학사 독서회원이 구독해서 읽는 이외에 저소득층이나 생산직 근로여성 중에서 독서의욕이 있는 문화계층(개인·단체)을 선별해서 연 7회에 걸쳐 100권이상의 책을 구입,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예전에는 2~3회에 그쳤던 '작가와의 만남'을 4월부터 12월에 걸쳐 8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보사회와 여성의 재택근무」 특강 가져



한국여학사협회는 21세기의 여학사들의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고 일과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부터 삼성생활문화센터(5층)에서 '회원 행사'를 개최하고 「정보사회와 여성의 재택근무」란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이화순(현대시스템 대표) 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서 "정보산업사회에서의 우먼파워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전문성, 다양성, 지속성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분야는 유연함과 인내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으로는 비교적 혼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DB정보제공, DB서비스 모니터링, 프로그램 작성, 멀티미디어 데이터 가공등

재택근무 가능한 영역이 어느 분야보다 많아 여성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진 사회가 도래했다"고 말하면서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산업업계는 네러리즘에 빠질 여유가 없는 곳이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스스로 몰입할 때만이 성숙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가속화될수록 정보 및 전산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이므로 전산 및 정보적으로 여성들이 남과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3회에 걸친 「작가와의 만남」 시간 가져



본회의 여학사 독서회는 「문화시민을 위한 독서운동」 일환으로 3회에 걸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18일에는 「인도로 간 예수」 저자인 송기원씨와 5월 21일에는 박완서씨의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를 가지고, 6월 24일에는 김현구 교수(고려대 사학과)의 「일본 이야기」에 대한 작가와의 만남의 자리를 삼성생활문화센터, 적십자사 강당과 대한문화출판협회에서 각각 마련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는 지난 6월 4일 24번째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명동 LCI 프라자 2층에서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국 비구니회 이광우 회장, 청룡사 김법운 주지, 불교대학원 목정배 원장, 장계환 교수, 김명심 강사, 윤영자 교수, 이정전 교수, 전재선 교수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여성불교연합회 김묘주 회장은 "불교는 모든 생물을 평등하게 보는 불상생계를 가르쳐왔고, 또 「유마경」의 말씀은 국토청정 마음이 맑아야 국토가 청정해진다는 의미처럼 환경문제에 관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환경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생활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학과)는 과거에는 환경오염이라고 하면 단순히 공해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환경정책 역시 그 처리하는 정도를 넘어서 공업형태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일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나 기업에서 이를 지키려는 실행의지가

아직 미약한 상태이고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친화제품을 구입하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윤리학의 제반문제」란 주제를 발표한 전재성 교수(한국불교대학 불교학)는 "연기법칙은 조건적이고 수반적인 생성의 구체적인 세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진정한 생태지향주의는 기계론적이거나 도구주의적인 과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제28차 BPW 전국대회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은 지난 6월 29~3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제28차 전국대회를 가졌다. 장마비가 억수로 내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교통이 혼잡을 빚는 가운데서도 전국 21개 클럽 회원 170여명과 50여명의 부산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96 BPW 전국대회가 진행되었다.

문정수 부산시장과 윤원호 부산여협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지위 향상과 성차별의식 개선에 기여한 전문직 여성들의 공로를 크게 치하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계속적으로 담당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하였다.

주제강연에서 연세대 조혜정 교수는 이대 축제에서의 고대생 난동사건, 서울대 우조교 재판과정에서 보인 남성들의 횡포, 직장내 성희롱사건 등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 가해자 의식', '여성비하적 행태'를 질타하면서 여성의 발전, 남녀간의 동반자 의식의 형성을 위해 우선 '여성 스스로가 여성에게 관대해 질 것'을 호소하였다.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워크샵에서 '전문직 여성들의 벗, 월간「전문직 여성」발간에 대해', '회원 확대 방안', '직장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불만', '직장내 성희롱 문제',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변형근로시간제 도입문제' 등 BPW 및 직장 여성들의 현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외에도 대회는 정관개정, 회비인상, 연맹 사업보고, 모범적인 활동을 벌인 7개 클럽의 활동사례 발표, 부산클럽-전주클럽과 새서울클럽-일본샌다이클럽간의 자매결연식, 회원과 클럽들의 숨은 장기와 율동, 각 클럽의 Gift Shop, 연맹이 마련한 기획상품전(고급실크림)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참석 회원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번 전국대회는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대회를 마치고 연맹 및 각 클럽의 발전을 기원하였다.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명사 미술전 출품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의 최옥자 회장은 지난 6월 4일~9일까지 서울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한 제2회 명사미술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또한 지난 6월 21일에는 미술특강을 개강하였다.

선교지 '샘바위' 배포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이 계간으로 발행하는 '샘바위' 여름호가 발간되어 육군 제3856부대 중무교회를 위문 방문해서 100부를 전달하였고, 28사단 977대대 등 군부대와 의정부 청소년 교도소, 공주 교도소와 전국 50여개 병원에 무료 배포하였다.

한국우먼스클럽

성아청소년 대표, 국제청소년대회 참가



한국우먼스클럽소속 '성아인터내셔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국제청소년대회에 성아청소년 대표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세계청소년대표들이 참가하여 서로의 우정과 역사와 언어를 통한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성아청소년 대표들의 참가는 이번이 22회째이며 이번 대회의 장소는 미국 아리조나주이고 출발일시는 7월 20일이다.

중앙부인회

울산지부 창단식



중앙부인회는 지난 6월 13일 울산지부 창단식을 가졌다.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단식에서는 중앙부인회장인 김취복 회장의 축사에 이어 울산시 심완구 시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울산지부 회원을 비롯하여 300여명의 내빈들이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연숙 회장이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건전한 여성의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여 울산지역 여성들에게 생활의식의 발전적 변화를 갖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으며, 이자리에 참가한 여성들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듯 이연숙 회장의 명강의에 찬사를 보냈고 울산지역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제8회 여성대회 가져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시의회 여



성의원, 구의회 여성의원, 각 여성단체장 및 1,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대전광역시 여성대회'를 가졌다.

여성대회 제1부는 '우리모두 다같이' 레크리에이션으로 시작하여, 제2부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주는 공로패, 유공자표창이 있었고 여협회장의 고문추대와 어려운 이웃 10명에 대한 격려금 전달이 있었으며 이어 김은숙 여협회장의 대회사, 홍선기 대전광역시 시장의 격려사, 김장숙 정무(제2)장관이 축사를 하였다. 제3부는 '인간화와 세계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건양대 김승종 교수가 앞서가는 여성지도자상에 대해 강연했다.

결의문 채택에서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 속의 대전을 만드는데 여성단체의 힘을 결집하여 '대전사랑 실천' 범 시민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 대전정신 세우기
- 대전경제 키우기
- 대전인재 키우기
- 대전문화 꽃피우기
- 밝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회장중첩공:튼주

우리 농산물 애용 전국 주부글 현상공모

농협중앙회에서는 우리 농산물 애용과 관련된 생활속의 이야기를 찾아내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협에서 펼치고 있는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8회 우리 농산물 애용 전국 주부글 현상공모를 실시하오니 뜻있는 전국 주부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전국 주부

2. 수필 또는 체험수기

3. 글의 내용

- △ 우리 농산물 애용 관련 식생활 체험기
- △ 수입농산물 구매에 따른 에피소드
- △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관한 이야기
- △ 한국인의 바람직한 먹거리 문화
- △ 농산물 원산지표시의 필요성

4. 응모요령

- △ 응모기간 : '96. 8. 1~'96. 9. 30('96. 9. 30 우체국 소인분 유효)
- △ 응모편수 : 1인당 1편
- △ 원고매수 : 200자원고지 20매내외
-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문화홍보부(우편번호 : 100-707 TEL : (02)397-5647)
- △ 유의사항 : 봉투앞면에 「제8회 우리 농산물 애용 주부글 응모작품」이라고 적고, 원고지 첫 장에 응모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판권은 본회소유)

5. 심사 : 전문심사위원 위촉 심사

6. 발표 및 시상

- △ 발표 : 당선자 개별통지 및 '96. 11. 13일자 농민신문에 게재
- △ 시상내역

구 분	편 수	시 상 내 역
최우수작	1	상금 200만원과 상패
우 수 작	2	상금 50만원과 상패
가 작	5	상금 20만원과 상장
계	8	

※시상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통보

주관 : 농협중앙회

본회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찬조금 •

허완구 ((주)승산 회장) 10,000,000원

• 이양호국방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국여성항공협회 100,000원

• 이석채정보통신부장관 초청 간담회 •

국제존타서울클럽 11명 100,000원
정세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50,000원
곽순덕 (대한약사회약사회 회장) 50,000원
김숙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50,000원
박애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50,000원
이윤봉외2인 (한국여류시각디자이너협회) 30,000원

김옥환 (본회 감사) 30,000원
서명숙, 이순화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30,000원
남상민, 손인숙 (한국자수문화협회) 30,000원
한신옥 (한국부녀복지연합회 부회장) 30,000원
신태희 (서울시청 여성정책보좌관) 30,000원
박충자 (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부 부회장) 30,000원

김길옥 (한국여학사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 30,000원
오경자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소장) 20,000원
이인숙 (국제존타서울클럽) 10,000원

• 후원금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5명 150,000원
심금순 (한국퇴역여군회 부회장) 20,000원
류순형 (한국퇴역여군회 부회장) 20,000원
김연옥 (한국퇴역여군회 이사) 20,000원
이옥남 (한국퇴역여군회 이사) 20,000원
이정자 (한국퇴역여군회 이사) 20,000원
이용복 (한국퇴역여군회 이사) 20,000원
이명자 (한국퇴역여군회 사무총장) 20,000원
안병언 (축협중앙회 강남지점) 20,000원
축협중앙회 서초지점 10,000원
축협중앙회 화곡동지점 10,000원
축협중앙회 강북지점 10,000원
허희정 10,000원
국방부 10,000원
정막희 10,000원
김영은 10,000원
서수원 10,000원

• 물품 찬조 •

김동수 ((주)한국도자기 회장)
접시 및 커피잔 세트 각 200개 기증



표지의 말

접 목

조문자 작

조문자씨는 1940년 경기도 송탄에서 태어나 1963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95년 조선헌에서 개인전까지 10회의 개인전과 1983년 '83 현대미술초대전, '88년 조선일보사 미술관 개관 기념초대전, '90년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 '90년 한국여성미술가 55인전, '91년 Art Fair(조선화랑초대), '93년 제8회 인도 트리엔날, '95년 600주년기념 서울 국제현대미술제와 서울 미술대전, 제10회 '95화랑 미술제 「화상 10년의 눈」, 1995년 한국여성미술제, 한국미술 50인 초대전(Paris, 유네스코 회관) 등의 국내외 다수의 초대전 및 단체전을 가졌다.

또한 199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1992년 부산일보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1993년 MBC 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지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2-82
전화 : 924-7563

후원자를 모십니다

본회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본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본회의 목표와 활동에 찬성하시는 분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여러분의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0원 이상 보내주시는 분께는 1년분 '여성' 지를 보내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동참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농협 한강로지점
067-01-001600
또는 지로용지 이용

후원금을 보내신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794-4560,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부서	회장	김이	경연	오숙	회계	이	사	이	오	식	출판	공	보	위	원	장	서	은	경
회	장	박정	영연	혜심	계	이	사	양	은	숙	국	관	계	위	원	장	회	영	회
부	장	이	연	기	감	사	사	김	옥	한	재	로	성	위	원	장	이	정	자
부	장	사	옥	순	조	관	리	위	원	장	사	무	호	원	장	김	배	주	래
서	기	강	회	자	기	재	정	위	원	장	현	순	덕						

회 원 단 제

회 원 단 제 명	회 장	주 소	전 화
대한간호협회	최영희	중구 생림동 88-7	279-3618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연합회	여귀옥	용산구 동자동 35-26	754-1707
한국여학사협회	김영자	도봉구 생문동 423-44	993-2378
대한조선협회	안선아	중구 장충동 1가 35-5	279-1972
여성문제연구회	윤숙	용산구 한남동 738-20 화성빌딩 302호	797-9185
중앙부인회	김취복	성북구 보문동 2가 7	928-2107
가톨릭여성연합회	박애주	중구 명동 1가 1번지 가톨릭회관 5층	778-7543
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	이정자	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804호	704-2284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엄노미	마포구 도화동 173번지 삼창프라자빌딩 508호	712-0713
한국여성항공협회	김경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1007호	786-1216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하종오	서초구 방배동 925-5	585-3351
한국우먼스클럽	김인숙	성북구 보문동 2가 56-12	924-5923
한국여성문화생활회	은방희	서대문구 홍은동 265-90	394-2112
국제존타한국연합회	박정순	광주광역시 북구 두원동 576-5 신광중학교	(062)528-6444
한국여성크리스찬클럽	최옥자	종로구 평창동 537-9	379-1872
대한약사회여약사회	곽순덕	서초구 서초동 1489-3 약사회관	581-1201
우리웃음협회	이운정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53-9 남옥치과 1층	(042)252-7033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왕준련	영등포구 신길1동 115-14	833-1623
국제여성총연합한국본부	현순덕	강남구 신사동 585-11 삼아빌딩 501호	549-5161
대한영양사협회	서은경	영등포구 신길7동 1351-3 천록빌딩 603호	842-2466
국제여성승공연합회	문수자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796-533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향	마포구 노고산동 54-18	332-091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고기효	동대문구 건동4동 582-5	244-5208
한국퇴역여군회	정영숙	성동구 용답동 236-10 삼호오피스텔 412호	214-2990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박정자	종로구 견지동 111-1	738-1250
한국자수문화협의회	남상민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회관 807호	736-5350
한·일여성친선협회	박정자	중구 목동 18 대학문화원 306호	273-7645
한·중여성교류협회	하영애	광진구 화랑동 48-3 용진빌딩 3층	463-2445
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	윤송자	서대문구 연희동 137-10 영원빌딩 4층	3141-7840
한국어류식각디자인협회	나성숙	강남구 논현동 192-6 범한빌딩 3층	545-6789
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	김묘주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1호	738-5586
천도교여성회본부	천보경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732-6867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기호	강서구 동촌동 645-11	3662-9417
대한여성과학기술회	오세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100 한국과학연구소	(042)860-7663
한국생활공예협회	임기선	용산구 원효로 1가 116-2 자산빌딩 3층	703-0168
원자력에너지여성모임	신영순	마포구 도화 2동 536 정우빌딩 304호	714-7451

협 동 회 원 단 제

협 동 회 원 단 제 명	회 장	주 소	전 화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기숙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42 신포동 동사무소 3층	032-783-8354
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은종인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684-55 전북여성회관 3층	0652-76-9675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김선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경기도여성회관	0331-39-8813
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김은숙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 2동 484-21 여성회관 2층	042-532-1610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윤병길	춘천시 효자 2동 333 춘천종합사회복지관 내	0361-262-1306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라정복	충북 청주시 상당구 복문로 2가 116	0431-55-7222

편집 후기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정보화 시대는 여성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시대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여성들의 창조성과 섬세한 특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남녀 평등한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대한다.

明.

월간여성 · 1996년 7월호 통권 342호
(매월 10일 발행)

• 발행: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발행인: 이연숙

편집인: 김금래

인쇄처: 코리아 헤럴드

사식 · 편집: 한라기획

발행일자: 1996년 7월 10일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427

☎ 794-4560, 794-4450~1, 794-4766~7,

FAX: 796-4995

• 편집: 출판공보위원회

위원장: 서은경

위 원: 김효자/나미래/문현경/박금옥/배동순/신동식/이경자/홍정희

담당: 이선영



「여성」구독안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계 의견 수렴을 통한 여성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비롯한 회원단체의 사업소개 및 국내외의 여성계 동향, 전반적인 사회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여성」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94-4560



전기의 편리함은 안전한 전기사용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4회 제3회 전기안전 어린이·주부 글짓기 공모

바로 쓰면 좋은 전기, 방심하면 전기 재해

1. 작품공모

■용모대상: 전교 초등학생 · 가정주부

■작품내용: 전기는 사용상 그 위험성을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로 인한 사고와 화재 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체험이나 기타 신문 등 재해예방 및 전기안전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원고분량: 초등학생 — 200자 원고지 7매 내외

주 부 —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접수기간: '96. 7. 15 ~ 10. 5

■접수처: 우편번호 134-07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6-2
전기안전공사 홍보실 전기안전 어린이·주부 글짓기 담당자 앞
(이메일 소인 유효)

■문의전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440-2275) 및 지사

2. 발표 및 기타

■발 표: '96. 10. 22 (화) 중앙일보, 소년한국일보 및 본사 게시판

■용모요령: 상명, 김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어린이는 학교명, 학교 주소, 학년, 반을 더 기재할 것
용모작은 절본과 작품머리에 전기안전 어린이 또는 주부 글짓기 용모작임을 기록할 것

■기타사항: - 입상작은 공사의 사보에 게재되며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림
- 간행물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품이어야 함
- 용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에 대한 관권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있음

3. 시상내용

	구분	인원	시상구분	시상내역	상금
어린이	대 상	1	통상산업부 장관상	상패 및 장학금	50만원
	금 상	1	한국방송공사 사장상	상패 및 장학금	40만원
	은 상	2	소년한국일보 사장상	상패 및 장학금	각30만원
	동 상	3	이사장상	상패 및 장학금	각10만원
	입 선	100	이사장상	상장 및 도서	-
주부	대 상	1	통상산업부 장관상	상패 및 상금	200만원
	금 상	1	한국여성단체 회장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은 상	1	중앙일보 사장상	상패 및 상금	50만원
	동 상	1	이사장상	상패 및 상금	30만원
	입 선	20	이사장상	상패 및 상금	각10만원

주 최: 한국전기안전공사

주 원: 통상산업부, 한국방송공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일보사, 소년한국일보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및 지사

본사: 02-440-2114 / 통부: 02-445-8187-9 / 북부: 02-999-7387-9 / 중부: 02-719-1613-5 / 영동부: 02-679-3741-4 / 남부: 02-567-9832-4 / 인천: 02-439-6505-7 / 경기: 03-148-5537-9 / 강원: 03-151-4292-4 / 충청: 03-151-647-6031-3 / 서울: 043-1211-3851-4 / 충남: 042-285-6407-10 / 전북: 063-245-9114-7 / 전남: 062-522-3811-2 / 대구: 053-954-3745-8 / 경북: 053-858-8351-4 / 경남: 055-1-88-0551-2 / 부산: 051-610-0510-4 / 제주: 064-43-2010-2 / 전기안전시험연구원: 0256-80-3114